「그러면 그졀문녀편네가 뒤쫏ᄎᆞ왓지……」

「션싱님은 엇더케아르셔요……」

「닉가앗가 여긔왓다가 집으로가는길에 황토마루제셔 셔병삼씨를만나셔 닉가길에셔맛낫지문은 넘오무졍ᄒᆞ다고 좀나물ᄒᆞ얏지 그리고셔로 허여져셔 조곰가노라니ᄉᆞ간 그졀문녀편네가 뒤ᄯᅡ라오더구면 그릭셔 나도의심이 셔씨를ᄯᅡ라가나ᄒᆞ얏더니 집에가셔 감은이ᄉᆡᆼ각을ᄒᆞ니ᄉᆞ간 암문히도 념녀가되야셔 지금ᄯᅩ오는길일셰 그러면 갓치왓셔구면 응」

리경ᄌᆞ는 눈물을씨스며 헛트러진 심ᄉᆞ를 가다듬어 ᄌᆞ초지졍리약이를ᄒᆞ여 오졍당에들녀주엇더라

이러ᄒᆞᆫ일이 업지아니ᄒᆞᆯ줄은 임의오졍당도 짐작ᄒᆞ엿스나 이와갓치일이 속히 탈로될줄은ᄉᆡᆼ각밧기라 가쟝놀닉이며 무어시라위로ᄒᆞᆫ는지 방향을잡지못ᄒᆞ야 길게한숨지으며

「셰샹일이 이러케허무ᄒᆞᆯ슈가잇나」

「아ㅣ니요 그졀문이는 나무랄슈가업셔요 그사ᄅᆞᆷ이 ᄂᆞ를원망ᄒᆞᆯ지언정 나는 그사ᄅᆞᆷ을원망ᄒᆞᆯ슈업시 되엿습듸다」

오졍당은 그소리에더욱이 괴가막히여 리경ᄌᆞ의얼골만 ᄇᆞ라보고잇다

뎨 삼 십 ᄉᆞ 회

리경ᄌᆞ는 간신히얼골을들며

「그것도그러치안슴닛가 그사ᄅᆞᆷᄒᆞ고는 발셔어려셔부터 혼인ᄒᆞᆫ닉원가보든데요 남에게남편을 ᄲᅢ앗기엿다ᄒᆞ기도 당연ᄒᆞᆫ말이지오」

오졍당은 혀를ᄎᆞᆯ々차며

「자네는ᄆᆞ음을 그러케먹으니ᄉᆞ가 남편안이면무엇은 안이일어바리겟나 남의ᄉᆞ졍을 ᄉᆡᆼ각ᄒᆞ엿지그려 닉ᄉᆡᆼ각은오히려 들ᄉᆡᆼ각ᄒᆞ니 엇지ᄒᆞ잔말인가 좀졍신을차리게」

「암만하여도 더는엇지ᄒᆞ면조ᄒᆞᆯ는지 도모지다른도리가업셔요」

「그러면 내ᄒᆞᆫ번셔병삼씨에게 ᄯᅩ단々히담판을ᄒᆞ여보고옴셰 ᄯᅩ듸체가 엇지ᄒᆞᆯ의향이냐고 물어보면 좌우간ᄒᆞᆫ마듸에 결졍이날터이니 그닥지 낙심ᄒᆞ지말게」

「션싱님ᄭᅦ셔는 더를위히셔 말슴이지오만은 안히가잇는사ᄅᆞᆷ이 ᄯᅩ안히를엇지엇슴닛가 져는첩으로나 다리고산다ᄒᆞ면 모르겟슴니다만은 더사ᄅᆞᆷ은 부모가허락ᄒᆞᆫ사ᄅᆞᆷ이오 져는아모도 아지못ᄒᆞ는사ᄉᆞ로ᄆᆡ진부々니 그일을엇지ᄆᆡ슴닛가 안히잇는사ᄅᆞᆷ인줄을 아지못ᄒᆞ고 허신ᄒᆞᆫ것문 지금와서는 원통ᄒᆞᆫ일이지요 남편에게인졔는 아모일을당ᄒᆞ야도 할구무언……」

말ᄭᅳᆺ은 가슴이막히여 맛치지못ᄒᆞ고 치마ᄭᅳᆫ을입에물고잇다

오졍당도 무엇이라고 위로홀말이업스며 조긔도셔병삼의위인이 이와갓치 무졍흔남조이라고는 뜻ᄒᆞ지못ᄒᆞ고 두사롬사이에서 쥬션ᄒᆞᄂᆞᆫ슈고를ᄒᆞ엿더니 리경조를이와갓흔 운명에빠지게홈에는 나의칙임도업지못홈을 써다르며 지금에 일으러 다시젼일늬외몸이 금젼에눈이어두엇든일을 뉘우친다 이일을엇더케ᄒᆞ면 잘미봉홈을엇으리오ᄒᆞ며 고긔를슉이고 깁히싱각ᄒᆞ다 리경조는 눈물도거두고 텬연ᄒᆞᆫ긔식으로 눈에ᄂᆞᆫ독긔를띄우고 이상스러온긔식이 낫타나며

「션싱님이 이몸을쟝ᄎᆞ엇지ᄒᆞᆷ닛가」

오졍당은 리경조의긔식과 그말ᄒᆞᆫ마듸에 가슴이울니며 무엇이라 형언치못ᄒᆞ게 가슴만두군거린다 오졍당은 다시ᄃᆡ답홀바를아지못ᄒᆞ고 다만리경조의 얼골만ᄇᆞ라보니 리경조는 홀연나오지안이ᄒᆞᄂᆞᆫ 우숨으로

「흐흐 졔가졔일을 모르면셔잇ᄂᆞᆫ 션싱님이 엇지아시리라고무려」

오졍당은 가삼을간신히진뎡ᄒᆞ여

「과이그리지말게 내한번더가셔 셔병삼씨다려 무러보고 올거시니」

「다시가실것도업슴니다 션싱님이 ᄆᆞ음을안이쓰셔ᄉᆞ 그러ᄒᆞᆫ것도안이오 다졔팔조가 이모양으로 타고나셔 그러ᄒᆞᆫ걸 엇지ᄒᆞᆷ닛가 인제는 텬슈나바ᄅᆞᆯ슈밧게업지요」

오졍당은 길게한숨짓고 고긔를슉인다 조곰잇더니 리경조는 무슴싱각을ᄒᆞ얏ᄂᆞᆫ지 고긔를들며

「참 션싱님이 언제든가 팔월초싱은 쳔졍어머니ᄃᆡ상이니ᄉᆞ간 칠월스무날게는 ᄇᆞᆯ가ᄇᆞᆯ나려가야ᄒᆞ겟다고ᄒᆞ시더니 인제벌셔 칠월보름게니 일간아마 써나셔야ᄒᆞ겟슴니다그려」

「응 어졔도편지가오고 어셔나려오라고 ᄒᆞ얏ᄂᆞᆫᄃᆡ 어ᄃᆡ가겟나만은 아모리싱각을ᄒᆞ여도 어머니ᄃᆡ상참례야 안이간달슈가잇셔야지 ᄂᆞ려가도 졔ᄉᆞ만지니고ᄂᆞᆫ 곳도로올터일셰」

리경조는 가장락담ᄒᆞᄂᆞᆫ모양으로

「져ᄂᆞᆫ 그동안엇지될ᄂᆞᆫ지 모르겟슴니다」

ᄒᆞᄂᆞᆫ소리에 오졍당은 여러가지로 념녀ᄒᆞ며 한숨을짓고잇더라

대 삼십 오 회

오날밤으로 급히써날일이 싱겻ᄂᆞᆫ고로 총々쥼작별못ᄒᆞ고 써나오며 조졔ᄒᆞᆫ긔별은 ᄉᆡ골가셔 셔々히긔별ᄒᆞ겟솝 총々슈조젹솝

칠월이십일々밤

셔병삼 상쟝

이엽셔ᄂᆞᆫ 이십이일아ᄎᆞᆷ에일으러 리경조의슈즁에 도착ᄒᆞ엿ᄂᆞᆫᄃᆡ 셔병삼에게로부터 보ᄂᆡ인엽셔러라

지금아츰열시쩍이라 아츰일즉이 로파는심부름으로 박게닉여보닉고 호을노져
々히안져긔운차리기 어려운몸을 마로기동에의지ᄒᆞ고 유연히남산을 바라보고
잇스니 요ᄉᆞ이십여일이후로 슈쳑ᄒᆞᆫ형용과 양미간에가득ᄒᆞᆫ슈심이 현져히낫타
나니 그가슴속에 한량업는 번민ᄒᆞᆫ사졍이야 다시엇더타 형언ᄒᆞ리오 이즈려
ᄒᆞ나 이즐수가업스며 싱각지안코자ᄒᆞ나 ᄌᆞᄌᆞ로싱각나는고로 몰녀오는근심의
구름이 홀연히눈을가리오면 바라보던먼산도 눈에보이지안이ᄒᆞᆫ다 다시손으로
눈엽셔를집어 이리보고 져리보더니 몸이벌々썰니며 참아볼슈업는지 다시눈
을감고 고기를들어광즁을향ᄒᆞ야 한숨짓는다 이엽셔가 리경ᄌᆞ로ᄒᆞ야곰 한숨
은 쉬지못ᄒᆞ고 도로혀공구(恐懼)ᄒᆞᆫ마음을 감동케ᄒᆞ며 ᄯᅩ는이엽셔한장이 인
연을끈는졀ᄌᆞ의 먼져ᄒᆞ는통긔인듯시 싱각이된다

「아씨당겨왓슴니다 오날은아츰부터 이럿케씨는것ᄀᆞᆺ치 덥슴니다그려 아
더워」

로파는 심부름단여와셔 얼골에흐른땀을 슈건으로씨스면셔 경업시안져잇는
리경ᄌᆞ를 건너다보며

「여보아씨 지금길에셔 셔방님을 맛나뵈왓지오」

이말이홀연 믹업시잇던 리경ᄌᆞ의안광으로ᄒᆞ야곰 불ᄭᅩᆺ츨일으킨다

「응 셔방님을 어듸셔 뵈앗단말인가」

「남ᄃᆡ문밧으로나오시는거슬 뵈왓셔요 아마뎡거장에가시나보아요」

「올아 어졔떠나실거슬 아마 못떠나셧던거시로군 그릿셔오날아참에 떠나
시는게지」

어졔밤에 만일떠나지못ᄒᆞ얏스면 오날아침 일즉이라도 잠간와셔 얼골이라도
보이고 작별을홀터인ᄃᆡ 그러치못ᄒᆞᆷ을리경ᄌᆞ는 한편으로 원통이역이는바이
라 리경ᄌᆞ의싱각은 셔병삼이 ᄉᆡ골나려가기젼에는 아모리ᄒᆞ드릭도 한번맛
나셔 남편의ᄆᆞ음을결단케ᄒᆞ며 내의심즁도 한가지남기지안이ᄒᆞ고 모다토셜ᄒᆞ
랴ᄒᆞ얏더니 한번시앗간에 젼징이일어는날이후로는 셔병삼이리경ᄌᆞ에게 발그
림ᄌᆞ를 안이ᄒᆞ얏슴으로인ᄒᆞ야 긔회를엇지못ᄒᆞ얏더라
눈치도젹고 간ᄉᆞ위업는로파는 무슴공이나셰운것ᄀᆞᆺ치 엽흐로와안즈며 감안이
말을ᄒᆞᆫ다

「그런데 아씨 셔방님은 혼ᄌᆞ가시는것이안이야요 엇던아씨인지 감아ᄒᆞᆫ치
를압셰우고 셔방님은 그뒤로인력거를ᄃᆞ시고 쳔々히따라가시옵ᄃᆡ다 그거
ᄂᆞᆫ 누구ᄇᆡ응을가시는게지오」

ᄆᆞᆨ々히듯고셔 안져잇던리경ᄌᆞ는 입살이불々썰니며 힛식ᄒᆞᆫ얼골에 한뎜피긔운
이 올으더라

임의 부々된사ᄅᆞᆷ이 한가지로 하긔방학의여가를 엇어귀셩(歸省)ᄒᆞ다ᄒᆞᆷ은당연ᄒᆞᆫ일이라 그러나 셔병삼이 그부인과 한가지로발뎡ᄒᆞᄂᆞᆫ것은 의심업시 그부인이 승젼고를울니고 남편의손올닉글고 감이니리경ᄌᆞᄂᆞᆫ 싱각이々에일으ᄆᆡ 지금에다시 원망과 투긔와 한이가슴의창일ᄒᆞ야 완연히몸을가마에 삼ᄂᆞᆫ것ᄀᆞᆺᄒᆞ야 이몸이비록아귀가되드ᄅᆡ도 이원통ᄒᆞᆫᄆᆞ음을 셜원코ᄌᆞᄒᆞᆫ다

이ᄯᅥᄂᆞᆫ 여름일긔라 셔긔ᄂᆞᆫ사ᄅᆞᆷ의몸을 시루에ᄯᅥᄂᆞᆫ듯ᄒᆞᆫᄃᆡ 리경ᄌᆞᄂᆞᆫ 홀로 셤약ᄒᆞᆫ몸을 안과밧그로ᄃᆡ우고잇스나 산란ᄒᆞᆫ졍신과 괴로운몸을강잉히슈습ᄒᆞ야 다만ᄒᆞᆫ가지 기다리고 바라ᄂᆞᆫ바ᄂᆞᆫ 셔병삼의 자셰ᄒᆞᆫ편지보ᄂᆡ쥬기와 복즁에잇ᄂᆞᆫ 어린아ᄒᆡ의 츌싱ᄒᆞᆷ이러라

리경ᄌᆞ가이와ᄀᆞᆺᄒᆞᆫ 비츰ᄒᆞᆫ경우를만남도 원인을말ᄒᆞ면 부모가허락지아니ᄒᆞᆫ 악힝(惡行)의결과이니 이를싱각ᄒᆞᆷ이 원통ᄒᆞᆫᄆᆞ음을 진졍키어려우며 부친은오히려 이몸을결빅무구(潔白無垢)ᄒᆞᆫ쳐녀로밋으시고 학교에도지금ᄭᅡ지 열심으로단이며 이번에ᄂᆞᆫ 하긔강습회로ᄒᆞ야 귀셩치못ᄒᆞᆫ다 편지ᄒᆞᆫ것도진실ᄒᆞᆫ일로밋고 계시겟거늘 만일불효ᄒᆞᆫ이몸의 ᄉᆞ졍을조곰이라도 아실진ᄃᆡᆫ 얼마나분노ᄒᆞ시며 얼마나한탄ᄒᆞ시리오 부친ᄭᅡ지 속인불효의 죄진일을싱각ᄒᆞᆷ이 일쳔간장이 미여짐을ᄭᅥ닷겟도다

이몸의 박명ᄒᆞᆫ거슬 뉘게살우어 퉁졍을엇을사ᄅᆞᆷ도업고 호을로슬허ᄒᆞ며 호을

노번민ᄒᆞ야 어언간오륙일을 경과ᄒᆞᆫ후 다만의론한마ᄃᆡ라도ᄒᆞ고지ᄂᆡ던 오졍당은 그모친의ᄃᆡ긔를 참예코ᄌᆞᄒᆞ야 싀골노나려갓ᄂᆞᆫ지라 리경ᄌᆞᄂᆞᆫ 비록너른셰계와 번화ᄒᆞᆫ경셩ᄂᆡ에잇스나 조고마ᄒᆞᆫ이몸을 의탁ᄒᆞᆯ곳업시 경々고입(煢煢孤立)ᄒᆞᆫ 가련ᄒᆞᆫ신상이되얏스니 비유컨ᄃᆡ 동셔를분간치못ᄒᆞᆯ광야(曠野) 가온ᄃᆡ 홀노ᄯᅥ러진 힝긱과ᄀᆞᆺᄒᆞ야 적막마상ᄒᆞᆫ바람부ᄂᆞᆫ하ᄂᆞᆯ에 ᄒᆡᄂᆞᆫᄯᅥ러지고 길은험ᄒᆞᆫᄃᆡ ᄉᆞ면은흑동々텬디(黑洞洞天地)오 음습ᄒᆞᆫ야긔(夜氣)ᄂᆞᆫ 사ᄅᆞᆷ의몸을 엄습ᄒᆞᆯ ᄲᅮᆫ이라 하날을울어러부르지지나 ᄃᆡ답이업고 ᄯᅡ를굽어통곡ᄒᆞ나 위로ᄒᆞᄂᆞᆫ물건이업스며 몸을붓쳐거름ᄒᆞᆯ 한가지집힝이도업고 압길을보여쥬ᄂᆞᆫ 일졈광명(一點光明)이업시 호을노 흑암々즁(黑闇闇中)에 파뭇쳐셔다만 한낫참혹비츰ᄒᆞᆫ운명의ᄒᆞᆷ졍에셔 번롱(飜弄)ᄒᆞᄂᆞᆫᄃᆡ 맛긴바될ᄲᅮᆫ이라 눈물이라ᄒᆞᄂᆞᆫ거슨 우ᄂᆞᆫᄌᆞ의 위로ᄒᆞᄂᆞᆫ거시요 통곡ᄒᆞᄂᆞᆫ자로 ᄒᆞ야금이위로를엇지못ᄒᆞ고 소리업ᄂᆞᆫ통곡은 진실노통곡ᄒᆞᄂᆞᆫ시의 가장슯흔거시라 오졍당이 시골로나려간후 리경ᄌᆞᄂᆞᆫ 그눈물도거두엇스며 그소리도거두고 깁히심즁에결단ᄒᆞᆫ바가 잇ᄂᆞᆫ드시 ᄯᅩᄂᆞᆫ무엇을기다리ᄂᆞᆫ것ᄀᆞᆺ치 극히링담ᄒᆞ게 날을보ᄂᆡ니 오호라 그결심ᄒᆞᆫ바ᄂᆞᆫ 무어시며 그기다리ᄂᆞᆫ것은 무어시리오

뎨 삼 십 칠 회

ᄭᅵᄂᆞᆫ듯ᄒᆞᆫ 삼복졀긔의 더위ᄂᆞᆫ ᄯᅩᄒᆞᆫ이곳에도 음습ᄒᆞᆷ을입어 가마솟안에셔 폭々

삼는듯ᄒᆞᆫ괴로움은 다만늑톄쁜이아니라 정신상ᄉᆞ지라도 침노ᄒᆞ야 호을노지향업시번민ᄒᆞᄂᆞᆫ 리경조의신상은 진실노 가련ᄒᆞ도다 져녁마다 피우ᄂᆞᆫ목의불압헤셔 눈물노날을보ᄂᆡ이며 흉즁에만단근심은 ᄯᅳᆯ압헤잇ᄂᆞᆫ 오동입식에부치엿스니 음식은조곰도당기지아니ᄒᆞ고 긔운은졈々쇠퇴ᄒᆞ야 잠시라도 근심은 이즐슈업스나 다만복즁에잇ᄂᆞᆫ 어린ᄋᆡ히를위ᄒᆞ야 몸도삼가며 음식도강잉ᄒᆞ야 먹ᄂᆞᆫᄃᆡ일으니 그몸의슈쳑ᄒᆞᆷ은 날노심ᄒᆞ나 큰병이잇ᄂᆞᆫ것은아니라 그러나 리경조의 이셔업시 슈쳑ᄒᆞ여가ᄂᆞᆫ교통(苦痛)은 진실로병보다 더욱즁ᄒᆞ다ᄒᆞᆯ지라 사ᄅᆞᆷ이라ᄒᆞᄂᆞᆫ것은 죠교마ᄒᆞᆫ병도 능히져당치를못ᄒᆞ거든 이몸은병보다 이상의 교통을져항ᄒᆞ며 지팅ᄒᆞ여지ᄂᆡ니 언제ᄉᆞ지라도 이괴로음을 엇지인ᄃᆡᄒᆞ야지ᄂᆡ리오ᄒᆞᄂᆞᆫ 싱각이 하일하시에 업ᄂᆞᆫᄯᅴ업다 그ᄲᅮᆫ아니라 심즁에는 눈에보이지아니ᄒᆞᄂᆞᆫ벽력이ᄂᆡ의머리에 ᄯᅥ러지려ᄒᆞᄂᆞᆫ것갓흔 싱각이나ᄆᆡ 스ᄉᆞ로 모골이송연ᄒᆞ고 몸이벌벌ᄯᅳᆯ니며 안식ᄉᆞ지라도 변ᄒᆞ야 흙빗과ᄀᆞᆺᄒᆞ야지ᄂᆞᆫ일 항상잇더라 리경조ᄂᆞᆫ 이와갓치 싱각ᄒᆞᆯ졔마다 참담ᄒᆞᆫ얼골에 미간ᄉᆞ이로ᄂᆞᆫ 무엇이라 형언키어려운 비참ᄒᆞᆫ빗이나타나며 안광이스ᄉᆞ로변ᄒᆞ여지고 혈식업ᄂᆞᆫ힌살이 벌々ᄯᅳᆯ니며

「아ㅣ만일그ᄯᅴᄂᆞᆫ ᄂᆡ가엇지되ᄉᆞ지 ᄂᆡ가입ᄃᆡᄉᆞ지 참아온것도 지리ᄒᆞᆫᄃᆡ ᄉᆞᆯ은지원통ᄒᆞᆫ지 무엇이라말ᄒᆞ면 조ᄒᆞᆯ지아지못ᄒᆞᄂᆞᆫ근심을 가지고셔도 정신일치아니ᄒᆞ고 잇ᄂᆞᆫ것이 도로혀이샹ᄒᆞᆫᄃᆡ 만일이위에 내싱각ᄒᆞᆫ바와갓치 무셔운괴별을 드를것갓흐면 정말내몸은 엇지될가 필경괴졀이라도ᄒᆞ여셔 죽던지 그러치아니ᄒᆞ면 밋치기라도 ᄒᆞᆯᄭᅳᆯ……」

몸은스ᄉᆞ로 벌벌ᄯᅳᆯ니인다

「만일영위 밋칠사ᄅᆞᆷ이되면 그ᄯᅴᄂᆞᆫ 이웃슈치도 더욱밋친년소리ᄉᆞ지 드를터이니……아ㅣ 그러케되면 엇지ᄒᆞ나

ᄒᆞ며 두팔을믹업시 무릅우에올녀노코 감아ᄲᅥᆫ눈을 번쩍ᄯᅳ며 우연히먼ᄒᆞᆫ날만ᄇᆞ라본다

「정말그러케되면 그붓그러온거슬 엇지ᄒᆞ고 아모조록 ᄆᆞ음을단단히먹고잇셔야지 그러치만 오날々ᄉᆞ지 참은근심도 긔ᄉᆞ것참앗ᄂᆞᆫᄃᆡ 일평싱이야이근심을ᄒᆞ고 엇지사잔말이야 셰상에사라잇셔々 남에게 슈치당ᄒᆞᄂᆞᆫ이보다진작결ᄉᆞᆷ것과 ᄀᆞᆺ치ᄒᆞ면ᄎᆞᆯ가……」

ᄒᆞ며 리경조ᄂᆞᆫ 길이ᄒᆞᆫ숨지운후

「아바지 졔죄를용셔ᄒᆞ야쥬시오……ᄇᆡᆨ번죽어도죄가남슴니다……」

ᄒᆞ며 홀연부친싱각ᄒᆞ고 체읍ᄒᆞᆫ다

이러구러 수일을지ᄂᆡ님의 발서팔월십일이되얏더라 리경조ᄂᆞᆫ 마로ᄲᅩᆺ헤걸어안져기동에몸을의지ᄒᆞ고 슈심에싸인몸이 정신업시안져잇더니 문ᄉᆞ간으로조차 우

편비달부의 목소릐가나며 한장편지와 한장신문이드러오는지라 편지붓친사름은 셔병삼이오 그신문보닌사름은 의심업는 그졀문부인이러라

리경조는 신문지허리민조희에쓴 녀조의필젹을보더니 졈졈얼골이변ᄒᆞ야 ᄃᆡ리셕상(大理石像)과ᄀᆞᆺ치푸르고 힌빗치낫타난다 ᄉᆞᆷᄒᆞ다 리경조가 오날々々지기다리고 기다리던거슨 즉허ᄉᆞ러라

뎨 삼십팔 회

리경조는 정신이아득ᄒᆞ고 가슴이울넝거리여 셔병삼의편지와 그부인의보닌신문을 바라보며 감히펴볼ᄆᆞ음이ᄂᆡ이키지안이ᄒᆞ며 편지밧아들고잇는손은 벌々셜닌다 요란ᄒᆞᆫ가슴을 억지로진졍ᄒᆞ고 한참동안업ᄃᆡ여 감안이잇서마음속으로 ᄂᆞᆫ하ᄂᆞ님씌 긔도ᄒᆞ얏는지 힘업시 눈을쓰고 편지부터먼져봉지를 쩨이고익는다

슈요즙 슈조적ᄉᆞ오며 우리가엇지ᄒᆞ야 이와ᄀᆞᆺ치 긴ᄇᆞᆫ관계를미졌던지 그간에는 조연부인에게ᄃᆡᄒᆞ야 심녀도만히세치고 고싱도만이식이엿스나 ᄂᆡ의ᄉᆞ졍이 그러치못ᄒᆞ고 젼일서울셔만나든녀조는 즉이사름의년젼에 셩취ᄒᆞᆫ안히이라 이왕부모가 셩취ᄒᆞ여쥬신안히를 다른연고업시 인연을끈코그ᄃᆡ를 마져온다ᄒᆞᆫ것도 도리의를닐ᄲᅳᆫ아니라 인정의용서치아니ᄒᆞᄂᆞᆫ바이며 그ᄃᆡ와셔로 ᄉᆞ괴야 오든졍의는 실노일시쾌락에 지ᄂᆡ지못ᄒᆞᄂᆞᆫ일이니 부인씨셔도 그일을남가의일몽에 붓치시고 이사름은단렴ᄒᆞ고 달니그ᄃᆡ의

맛ᄂᆞᆫ남편을구ᄒᆞ여 지ᄂᆡ시기를바라오며 젼에그ᄃᆡ와 교회당에셔 거힝ᄒᆞᆫ 결혼식은 이사름이금젼을만히써셔 그곳목ᄉᆞ에게명ᄒᆞ야 힝ᄒᆞᆫ것이니 이ᄂᆞᆫ ᄒᆞᆫ씩그ᄃᆡ의ᄆᆞ음을 흡족케ᄒᆞ고조ᄒᆞᄂᆞᆫ마음에 지ᄂᆡ지못ᄒᆞ여 이일은 본릐그 교회의긔록에도 올니지아니ᄒᆞ얏ᄂᆞᆫ고로 엇더ᄒᆞᆫ방면으로보던지 그ᄃᆡ와나 의결혼은 조곰도효력이업ᄂᆞᆫ줄로아시압 불일ᄂᆡ로 출싱ᄒᆞᆯᄋᆞ히ᄂᆞᆫ 남녀간에 그ᄃᆡ가임의로 양육ᄒᆞ얏스면좃켓ᄉᆞᆸ 그러나만일쳐지에 곤난이잇거든 그씩ᄂᆞᆫ 이사름이다려다가 기르기로ᄒᆞ여도 좃켓ᄉᆞᆸ

팔월구일

셔병삼 샹쟝

리경조 젼

이와ᄀᆞᆺ흔 한뎜ᄯᅡ ᄉᆞ뜻ᄒᆞᆫ졍이업고 무졍릥담ᄒᆞᆫ편지를 보기를다ᄒᆞᆫ리경조는 젼신의피가일시에 ᄂᆡ ᄉᆞ속으로올나와셔 오날々이와갓흔 참혹ᄒᆞᆫ일을당ᄒᆞᆯ줄을 짐작ᄒᆞ얏슴으로 젼부터ᄉᆞᄉᆞ로 경계ᄒᆞ여 긔운을진졍ᄒᆞᆫ일이업셧슬진ᄃᆡ 조긔가ᄉᆞᄉᆞ로겁ᄒᆞ던바와갓치 밋치ᄂᆞᆫᄃᆡ일으던지 그러치안이ᄒᆞ면 잠시라도 긔졀홈을면치못ᄒᆞ엿슬터이라 그러나 리경조가 이슈일ᄂᆡ로 마음을가다듬어 이러ᄒᆞᆫ일이잇슬줄을 미리짐작ᄒᆞᆫ효험으로 밋치지도안이ᄒᆞ엿스며 긔졀도아니ᄒᆞ고 어ᄃᆡ々지던지 그침졍(沈靜)ᄒᆞᆫᄃᆡ도를 일치안이ᄒᆞ얏더라

그러ᄂᆞ 억지로 이침졍ᄒᆞᆫ듸도를 보존ᄒᆞᄂᆞᆫ속에ᄂᆞᆫ 얼마콤 그가련ᄒᆞᆫ흉즁에 무한ᄒᆞᆫ고통이 싸엿슴을알니요

눈에ᄂᆞᆫ 한뎜눈물도 먹음지안이ᄒᆞ고 입에ᄂᆞᆫ한마듸소ᄅᆡ도 ᄂᆡ지안이ᄒᆞᄂᆞᆫ 쳐음부터 샹긔되얏던량협에 혈식이변ᄒᆞ야 쳥빅식(靑白色)이낫타ᄂᆞ며 다만졍신은 바람에ᄂᆞ빗기ᄂᆞᆫ 버들입ᄉᆞ귀ᄀᆞ치 벌々썰고잇슬ᄲᅮᆫ이라 조곰잇더니 ᄅᆡ경ᄌᆞᄂᆞᆫ 다시졀믄부인이 보낸신문을집어허리에 ᄆᆡ인봉을쯧고보니 쳣지로눈에보이ᄂᆞᆫ 것은

「셔씨가 경연」

이라ᄒᆞᆫ 제목이라

셔씨가경연 본도ᄃᆡ구달셩촌에 거ᄒᆞᄂᆞᆫ부호로 ᄯᅩᄂᆞᆫ명망가로지목ᄒᆞᄂᆞᆫ셔도ᄉᆞ에령식 셔병삼씨ᄂᆞᆫ 어려셔부터 경셩에유학ᄒᆞ야 어학을연구즁이더니 금년하긔휴학에 여러히만에 고향을왓슬ᄲᅮᆫ아니라 그셔도ᄉᆞ의 조부권씨도 혼인후신부례를 지우금오륙년이되도록 못ᄒᆞ얏다가 이번긔회를리용ᄒᆞ야 신부례를거힝ᄒᆞ고 셩ᄃᆡ혼연회를ᄇᆡ셜ᄒᆞ고 일군빈긱을모다쳥요ᄒᆞ야 화긔ᄋᆡ々지즁에 존쳐를맛치엿스며 신랑신부ᄂᆞᆫ 외국풍속을본바다 명일부터 이쥬일예졍으로 각쳐명승ᄃᆡ를차자 신혼려힝을ᄒᆞᆫ다ᄒᆞ니 우리경상북도로ᄂᆞᆫ 신식으로 신혼려힝은 셔병삼써로 호시(嚆矢)를 삼겟다더라

뎨삼십구회

셔병삼의편지를 볼ᄯᅢ々지ᄂᆞᆫ 침졍ᄒᆞᆫᄃᆡ도를 보존ᄒᆞ든리경ᄌᆞᄂᆞᆫ 이권씨부인이보ᄂᆡᆫ 시문의 괴ᄉᆞ를보고ᄂᆞᆫ드ᄃᆡ여 침졍ᄒᆞᆫᄃᆡ도를 동일히보존ᄒᆞ지못ᄒᆞ얏더라 셔병삼의 편지에ᄃᆡᄒᆞ야ᄂᆞᆫ 임의결심ᄒᆞᆫ비잇거니와 권씨부인은 ᄌᆞ긔를희롱ᄒᆞ여ᄯᅩᄂᆞᆫ조롱ᄒᆞ고 겨동ᄒᆞ야 밋치도록 만달고ᄌᆞ 일부러이신문을보아라 ᄒᆞᄂᆞᆫ뜻으로보ᄂᆡᆫ것이라 그ᄯᅳ지ᄂᆞᆫ 뜻ᄒᆞ지아니ᄒᆞ얏슴으로 홀연신문보던눈이 감々ᄒᆞ여지며 동시에흉즁에 분긔일어나며 피가쓸고 살점이뛰여 악금니에셔 ᄉᆞᄉᆞ로갈니ᄂᆞᆫ소ᄅᆡ나며 눈속에셔ᄂᆞᆫ 피ᄉᆞ빗시챵일ᄒᆞ여 분홈과원통ᄒᆞᆷ을 참고잇ᄂᆞᆫ모양은 진실로보기에 쳐참ᄒᆞ며 나죵에ᄂᆞᆫ 참다못ᄒᆞ야 들엇든신문을 여러조각에씨져 바리고 그ᄃᆡ로그ᄌᆞ리에 엄드러진다

ᄯᅳᆯ압헤나무우에셔ᄂᆞᆫ ᄆᆡ암이우ᄂᆞᆫ소ᄅᆡ가 요란ᄒᆞ며 나무입시가 바람에흔들니다가ᄉᆞᆫ치고 더운긔운다시사ᄅᆞᆷ의몸을 음습ᄒᆞᄂᆞᆫᄃᆡ ᄉᆞ면은잡든것ᄀᆞ치 고요ᄒᆞᆫ즁 ᄅᆡ경ᄌᆞ의늑기ᄂᆞᆫ소ᄅᆡ가 잠간들니더니 ᄆᆡ암이소ᄅᆡ로 홀연ᄯᅳᆨᄉᆞᆫ천후 삼싼갓흔족진머리가 갓금움작일ᄲᅮᆫ이라 ᄲᅩᆺ고잇든은빈혀가 졈々빠져방바닥에 징그렁ᄯᅥ러질ᄉᆡᆨ에 쥭엇든사ᄅᆞᆷ이 다시졍신붓흔것갓치 리경ᄌᆞᄂᆞᆫ고ᄀᆡ를번쩍ᄃᆞᆫ다 눈에ᄂᆞᆫ눈물도거두고 결심ᄒᆞᆫ빗이낫타나며 얼골에ᄂᆞᆫ 극히양々ᄒᆞᆫ빗이 가득ᄒᆞ다

다만보건ᄃᆡ 리경ᄌᆞᄂᆞᆫ 무슴말을ᄒᆞ려ᄒᆞ다가 막히여나오지아니ᄒᆞᄂᆞᆫ모양이요 몸

만벌々썰고잇기를 한참ᄒᆞ더니 젹이진졍ᄒᆞ야 눈을다시감고 가슴에오른손을다이며 마음속으로

「아ㅣ 지금다시 남을원망ᄒᆞ면 도로혀졈々 졔죄만더ᄒᆞ는것이니 나는셔씨도 원망치아니ᄒᆞ고 권씨부인도 나는원망홀수업고 이것은다ᄂᆡ가 쌀인죵조에셔 거두는결과라고 싱각ᄒᆞ면 그뿐이라 아모리ᄒᆞ여도 나의늑신은비록움작이나 마음은발셔죽은지 오린지라 진실ᄒᆞᆫ마음이 임의죽어셔 졔와ᄀᆞᆺ치된 이육신을살여무엇ᄒᆞ리오 잠시동안에 고통도능히 익의지못ᄒᆞ거늘엇지일평싱을 싱존ᄒᆞ여 이고통을격그리오 계집의뎨일붓그러운 이러릇부졍ᄒᆞᆫ몸이되야 남편에게는 ᄂᆡ친ᄇᆡ되얏스니 누구를향ᄒᆞ야 얼골을들며 누구를ᄃᆡᄒᆞ야 수작을ᄒᆞ리오 다만나를사랑ᄒᆞ시는 우리부친의얼골이나 한번뵈옴고 가슴에가득ᄒᆞᆫ말슴을 조복ᄒᆞᆫ후 부친씌셔 녈부신마음으로 용셔ᄒᆞ여쥬마시는말슴이나 ᄒᆞᆫ마듸듯고 죽을것갓흐면 죽어도원이나업스련만 이몸으로가셔부친을뵈옵고 말슴ᄒᆞᆯ낫은 진졍업고 만일오날이라도 부친이을나오셔셔 맛나뵈올디경이면 마음ᄃᆡ로 실컨울고 젼후죄를조복ᄒᆞ면 부친씌셔도용셔ᄒᆞ여준다고 말슴을아니ᄒᆞ야쥬실리 업겟지만은 내가々셔야 부친인들무슴낫으로 뵈오리오 살어셔사람에게 슈치를나타ᄂᆡ기는 나는ᄂᆡ비위로는 졍말ᄒᆞᆯ수업스니 부친씌는 막ᄃᆡᄒᆞᆫ불효를 세치나 나는죽겟스오며

내가지은죄는 디필로써셔조복ᄒᆞ고가오니 나죽은후에 불상ᄒᆞᆫ년이라고 말슴ᄒᆞ여쥬시면 디하에가셔라도 웃고눈을감겟스오나 내가죽은후에 우리부친씌셔는 얼마나비창ᄒᆞ야ᄒᆞ실고 그싱각을ᄒᆞ면 죽을ᄆᆞ음이……그러나 사라잇다ᄒᆞ여도 ᄆᆞ음은다썩어 고목갓치된ᄉᆞᆯ을 일평싱다리고 계신다ᄒᆞᆫ들 부친씌는 무슴유익이잇스리요 도로혀 리우만흘ᄲᅮᆫ이니 찰하리한씩슬허ᄒᆞ시더릭도 길게근심을 부모에게씨치지아니ᄒᆞᆫ것이 오히려부친씌ᄃᆡᄒᆞ야ᄂᆞᆫ조식의도리가될는지도 모르리로다 ᄯᅩ셔병삼씨로말ᄒᆞ드릭도 내가죽엇다ᄒᆞ면 불상ᄒᆞ게는 싱각ᄒᆞ야쥬겟지 권씨인들 나죽은후ᄉᆞ지라도 미워홀리가잇나 아ㅣ 나는죽어야 오히려ᄆᆞ음이 편홀터이야……복즁에ᄋᆞ히는 아모리존잉ᄒᆞ고 불상ᄒᆞ지만은 아비업는조식으로 어미와ᄒᆞᆫ가지고싱ᄒᆞᄂᆞ니보다 어미가ᄂᆞᆫ곳으로 멀니동힝ᄒᆞᄂᆞᆫ거시 졔게도 유익홀터이오 무정ᄒᆞᆫ져의아바지 셔병삼을조져 준다ᄒᆞ기로 그집안에가셔 무슨슬음을밧을는지도모르겟스니……아ㅣ 나는 엇지히셔 이와갓치 운슈를비식ᄒᆞ게타고낫노 젼졍이 구만리ᄀᆞᆺᄒᆞᆫ몸으로 졔손으로 졔목슴을끈코자ᄒᆞ니 이거시 젼싱에무슴죄말이오 남은남의 ᄉᆞ졍을아지도못ᄒᆞ고 나다려밋친년이니 지각업ᄂᆞᆫ거시니 ᄒᆞᆯᄂᆞᆫ지도모로겟지만은 나도좌우로긥히긥히 싱각ᄒᆞᆫ후에 결심ᄒᆞᆯ일이니 다시ᄂᆞᆫ결심을 움작이지못ᄒᆞ리라 아ㅣ……」

이와갓치 싱각홈의 스스로가슴에 먹혀나오는 슬음에 소리질너 울음이되는것을억지로혀를 써무러츰교

「아참죽기로 이왕결심ᄒᆞ얏는ᄃᆡ 지금와셔무엇이 다시절스단말이 나는죽어야 죄를속ᄒᆞᆯ슈가잇고 이럿틋교싱을ᄒᆞ다가죽으면 하ᄂᆞ님이라도 죄를용셔ᄒᆞ여 주시리니 이몸은죽기외에는 안심ᄒᆞᆯ도리가업거늘 이러케ᄆᆞ음이약ᄒᆡ셔 엇지ᄒᆞ나 응 차ᄎᆞ 유언이나써셔 놋치」

뎨ᄉᆞ십회

리경ᄌᆞ는 이졔죽는것으로 안심을엇는다ᄒᆞ야 ᄆᆞ음을결단ᄒᆞ고 쳑상을향ᄒᆞ야 조희와 베루를내여놋코 ᄉᆞ후의유셔를 쓰고ᄌᆞ홈이라 먹을갈냐ᄒᆞ는손에는 힘이ᄒᆞ나도업고 쥬지를펼쳐노으니 붓ᄃᆡ쥬이기젼에 먼져 써러지는것은 눈물이라 잡앗던붓ᄃᆡ를내던지고 다만길게한숨도지으며 펼쳐노은죠지위에 얼골을숙으리고 들지못ᄒᆞ기를몃번이더니 그럭져럭쓴편지가 두어발이나되게 써쓰니 이는그부친 리리장에게 보내는것이니 ᄌᆞ긔의ᄌᆞ초지종의ᄉᆞ실을ᄒᆞ나도 은휘치안니ᄒᆞ고 셰々히ᄌᆞ복ᄒᆞᆫ것인ᄃᆡ 가련ᄒᆞ고불상ᄒᆞᆫ졍셰가 그편지속에 력々히나타난다

그다음에쓴 편지는 리경ᄌᆞ가 셔병삼에게 붓치는것이니 그편지는 이와갓치긔록ᄒᆞ얏더라

초구일부치신편지는 오날ᄌᆞ셔히밧ᄌᆞ와 뵈왓ᄉᆞ오며 나려가신후 ᄌᆞ서ᄒᆞᆫ일을긔별ᄒᆞ겟다ᄒᆞ시기 오날이러ᄒᆞᆫ편지를볼줄를 짐작ᄒᆞ고잇서ᄉᆞ오나 너모도무졍ᄒᆞ오신ᄃᆡ 야속ᄒᆞ온말ᄉᆞᆷ은 이로ᄎᆞᆼ량키어렵ᄉᆞᆸ 늬죄로인연ᄒᆞ야 졔가벌을밧는것인ᄃᆡ 지금와서 누를원망ᄒᆞ겟ᄉᆞ오며 권씨부인은 본ᄃᆡ어려서셩취ᄒᆞ신터이라ᄒᆞ오니 더구나 그부인도 원망ᄒᆞᆯ슈업ᄉᆞᆸ 그러ᄒᆞ오나 이곳은 서방님을 남편으로알고 ᄃᆡ산ᄀᆞᆺ치바라고밋고 지늬읍다가 남편의늬천비되니 이몸이 이모양되야 셰상과부모에게라도 붓그러온일을 당ᄒᆞᆯ슈업사오며 이곳다려 다시얌젼ᄒᆞᆫ남편을구ᄒᆞ야 일싱을잘보내라ᄒᆞ오셧스니 그말ᄉᆞᆷᄒᆞ신것을보오면 이사ᄅᆞᆷ의ᄆᆞ음을 지금々지라도 모로교ᄒᆞ시는말ᄉᆞᆷ인듯ᄒᆞ오니 더욱이한심만ᄒᆞ오이다 이곳은오날밤으로 이셰샹을리별코져ᄒᆞ오며 다만ᄆᆞ음에 걸니는것은 복즁에잇는ᄋᆡ히가 멋칠아니면 이셰샹을구경ᄒᆞᆯ터인ᄃᆡ 제어미잘못맛는죄로 무죄ᄒᆞᆫ어린몸이 어미와한가지 황쳔에동힝을ᄒᆞ교ᄌᆞᄒᆞ니 잔잉ᄒᆞ기 가이업ᄉᆞ오나 비록셰상에 출싱ᄒᆞ기로 셔방님의사랑이밋지못ᄒᆞᆯ터이오 져의어미보다도 더욱불힝ᄒᆞᆫ셰월을 보낼터이니 찰하리 당초에 이무졍ᄒᆞᆫ셰월을 보지아니ᄒᆞ는거시 도로혀 이ᄋᆡ히의힝복이라ᄒᆞ겟ᄉᆞ오며 싱젼에는 이몸을구수갓치 아셧ᄉᆞ오나 셔방님의 구만리갓흔젼졍에 더욱〈영화로이 지내시도록 이몸은 디하에도라가서라도

명명지중에 츅원ᄒᆞᆯ터이오니 어린ᄋᆞᄒᆡ와 ᄒᆞᆫ가지로 이셰샹에 ᄌᆞ최를ᄯᅥ나 고ᄌᆞᄒᆞᄂᆞᆫ 이박명(薄命)ᄒᆞᆫ계집을 죽은후에나 가련ᄒᆞ게 아실ᄂᆞᆫ지오 권씨부인에게로 부쳐보내신 그곳신문을보오니 내외분이 일간신혼려힝을 ᄒᆞ오신다ᄒᆞ오니 이곳이 마지막으로 눈물을ᄲᅮᆯ이며 쓴편지도 이곳이 죽은후 몃칠지내여 아마보실듯ᄒᆞ며 두번은 남이부러워ᄒᆞᆯ만ᄒᆞᆫ ᄌᆞ미잇ᄂᆞᆫ셰월을보내실일 더욱이감축ᄒᆞ오이다

ᄒᆞ올말ᄉᆞᆷ은 하히갓ᄉᆞ오나 미워ᄒᆞ시ᄂᆞᆫ 계집의손으로쓴 긴치아니ᄒᆞᆫ편지를 일부러보라ᄒᆞ기도 도로혀불안ᄒᆞ와 그만긋치오며 혈루(血淚)에 어리운필적을 눌너보시기ᄇᆞ라옵ᄂᆞ이다

팔월십일

리경ᄌᆞ 답상장

셔병삼 젼

뎨ᄉᆞ십일회

리경ᄌᆞᄂᆞᆫ 그편지쓴기를다ᄒᆞᆫ후 오졍당에게 영결ᄒᆞᄂᆞᆫ편지와 상직ᄌᆞᄂᆞᆫ로파에게 슈ᄌᆞᄯᅩ겨어노앗스니 로파에게ᄒᆞᆫ편지에ᄂᆞᆫ 나ᄂᆞᆫ부득이ᄒᆞᆫ사졍으로 인연ᄒᆞ야 죽으니 고향에서 우리부친이올ᄂᆞ오셔셔 일을쳐치ᄒᆞ기ᄭᅡ지 이집에기다리고잇스라부탁ᄒᆞ엿고 ᄯᅩᄂᆞᆫ 다소간돈냥도 동봉ᄒᆞ여노앗더라

이러ᄒᆞᆯᄯᅵ에 일곱시반을치ᄂᆞᆫ 종현텬쥬교당에서 치ᄂᆞᆫ종소ᄅᆡ가 동남풍좃ᄎᆞ귀로드러오ᄂᆞᆫᄃᆡ 희ᄂᆞᆫ발셔 황혼에일으럿더라 이ᄯᅵᄭᅡ지 부억속에서 져녁밥을짓노라고 골몰ᄒᆞ던로파ᄂᆞᆫ 져녁을펴가지고 올나와셔

「아씨 져녁다되얏슴니다 진지잡슈시지오」

ᄒᆞ며 지게문밧게 빗켜셔々 방안을드려다보며 말ᄒᆞᄂᆞᆫ로파의소리에 리경ᄌᆞᄂᆞᆫ 지금ᄭᅡ지 ᄭᅮ든ᄭᅮᆷ을ᄭᅡᆷ짝ᄭᅢ여 말ᄒᆞᄂᆞᆫ사ᄅᆞᆷ의얼골을 바라보며 간신히입을열어

「나ᄂᆞᆫ엇젼지 몸이압하셔 밥싱각이업스니 ᄌᆞ네면져먹게」

「아이고 ᄯᅩ어ᄃᆡ가편치못ᄒᆞ셔요 억지로라도 조곰잡셔보실싱각을ᄒᆞ여보시지오 어머님이안이 잡슈시고 긔운이짓치시면 어린ᄋᆞ기에도 ᄒᆡ롭슴니다」

리경ᄌᆞᄂᆞᆫ 속으로ᄅᆡᆼ소ᄒᆞ며

「나ᄂᆞᆫ 조곰잇다가라도 먹을터이니 ᄌᆞ네면져먹어치우게」

「그럼 아씨 져면져먹겟슴니다」

「응 어셔먹게 밥먹고 ᄂᆡ심부름ᄒᆞᆯ일이ᄯᅩ잇스니……」

「아이그리면 얼풋먹겟슴니다 그러나 아씨가 진지달게잡수셔야ᄒᆞᆯ터인ᄃᆡ」

리경ᄌᆞᄂᆞᆫ 말업시다만 고ᄀᆡ숙이고잇ᄂᆞᆫᄃᆡ 로파ᄂᆞᆫ 홀로자미업고 신샨스러운 모양으로 숫가락을 올녓다나려다ᄒᆞ고 잇다

리경ᄌᆞᄂᆞᆫ 아모조록 로파에게 긔ᄉᆡᆨ을뵈이지안이코ᄌᆞᄒᆞ나 가슴속에ᄂᆞᆫ 일만가

지로 신셰타령이교집ᄒᆞ여 심ᄉᆞ를어ᄃᆡ다비ᄒᆞᆯ길업다 로파는밥먹기를 다ᄒᆞ고방으로드러오더니

「아씨 밥다먹엇슴니다 무슨심부름님닛가 얼릇단여 오지요」

리경ᄌᆞ는 편지셕장을집어 그중에두장을 가르치면셔 조곰도ᄉᆞ식이업시

「이편지두장은 우체통에 집어넛코 ᄯᅩ이편지한장은」

ᄒᆞ며 오졍당에게 ᄒᆞ는편지를가라치며

「동관오션싱님ᄃᆡ에 갓다두고오게」

로파는 셕장편지를 손에바다들고 남포불밋헤더욱푸르고 흰 리경ᄌᆞ의얼골을

이상스러히 ᄇᆞ라보며

「웬 편지는 이러케여러군데다가 붓치심닛가」

「압다잔소리ᄒᆞ지말고 하라는ᄃᆡ로나ᄒᆞ게그려」

「네ㅣ」

ᄃᆡ답ᄒᆞ며 로파는 오졍당에게 가는편지를보며

「그러나 그오션싱님이 일젼에 ᄉᆡ골가신다고ᄒᆞ시지 안이힛슴닛가 벌셔올나오셧슷가요」

「아즉 올나오시지는 안이ᄒᆞ셧지만 올나오시거든 보시게드리라고 그집에 잇는사ᄅᆞᆷ에게 단々히일으고오게」

리경ᄌᆞ의 ᄌᆞ긔ᄆᆞ음은 조곰도ᄉᆞ식을 보이지아니ᄒᆞ는것ᄀᆞᆺ흐나 남이보게는 언어와긔식이 슈샹슬업게들나고보인다 로파는 리경ᄌᆞ의얼골과 편지를 번가라가며 바라보며

「이편지 두장은 요압우톄통에넛코 드러오겟슴니다 그리고동관 오션싱님께가는편지는 릭일일즉안이 단녀오지오」

리경ᄌᆞ는 소리를 죠곰크게ᄒᆞ며

「글셰 웨 그리잔소리를ᄒᆞ나 갓다오라면 갓다올것이지 남은급ᄒᆞᆫ일이잇셔々 그러ᄒᆞ는ᄃᆡ 공연히 핑계만ᄒᆞ고잇네그려」

ᄒᆞ며 로파를 핀잔준다 로파는 멋슥ᄒᆞ며

「네 그럼 갓다오지요」

로파가 문밧을나간후에 만일더듸면 발각이될가 념녀ᄒᆞ야 리경ᄌᆞ는 헌옷은버셔 쟝속에너허노코 진솔노말나두고 입지안이ᄒᆞ던 새옷슬ᄂᆡ여 슈의겸ᄒᆞ여입고 ᄯᅩ집안에 ᄌᆞ긔가쓰던물건은 비록조고마ᄒᆞᆫ물건이라도 일々히치여 졍졔히ᄒᆞ여노흔후 이졔이집을보는거시 마지막이로다ᄒᆞ며 몃달동안졍드럿든 내의집을도라보며 시든풀닙ᄉᆡ갓흔몸이 그림ᄌᆞ갓치 문을나셔니 ᄆᆞ음도어지럽고 다리도어지러워 몸을임의로 츄신치못ᄒᆞᆯ지라 길가에노인 인력거를불너 입밧게 간신히나오는소리로

「여보게 인력거 룡산ᄭᅡ지 좀다려다쥬게」

뎨ᄉᆞ십이회

여러달동안을 듸즁의몸을 삼가노라 것지도아니ᄒᆞ고 타지도아니ᄒᆞ든몸이 별안간에 인력거의휘달니여 용산강변ᄭᅡ지나아오니 신긔불평ᄒᆞ며 복즁이 심히 거북ᄒᆞᆫ지라 그러나 지금이시각으로 죽을몸이 무슴일이잇기로 엇지교계ᄒᆞ며 괴운업는다리를 간신히온겨노아 그럭뎌럭 로돌강사 철로다리노인듸ᄭᅡ지 일으럿더라 이곳은 본듸인가가 희소ᄒᆞᆫ강변이라 맛참왕듸ᄒᆞ는사롬은 한아도업고 다리원편으로 십여간동안이나써셔 십여호사는동ᄂᆡ가잇는듸 멀니창밧그로 쏘여나오는 등잔불만반짝ㅣ〳〵ᄒᆞᆫ다

리경ᄌᆞ는 철교난간을 허위잡고 다리를침독우에 올녀노코 한숨쉬고 ᄉᆞ면을휘도라본다 이ᄯᅢ쵸싱달은 열분구름에싸여 캄々ᄒᆞ여지고 강가온듸로셔는 년긔갓흔괴운이 공즁으로소사오르는ᄂᆡ 언덕에부듸치는 물결소리는 은々히ᄋᆡ원ᄒᆞ는곡조갓치들니여 완연히황쳔의소식을 젼ᄒᆞ는듯ᄒᆞ며 풍편으로좃ᄎᆞ오는 룡산으로ᄅᆡ왕ᄒᆞ는 뎐ᄎᆞ다니는소리와 ᄯᅢ々로나는 발종치는소리가 쳐량스러이들니는듸 이것도또ᄒᆞᆫ 이셰샹에서 마지막으로 듯는소리가 안이리오 리경ᄌᆞ는 두손을모아 하날을향ᄒᆞ야졀ᄒᆞ고 구즁으로츅원ᄒᆞ여 지금경각ᄉᆞ이에 이셰샹을바릴일을싱각ᄒᆞᆷ이 졸연이 가슴이막히인다 오날々ᄭᅡ지라도 하ᄂᆞ님이 도아쥬시

는것을가지고 제가스스로 구ᄒᆞ여엇은벌로 오날밤에 이참혹ᄒᆞᆫ디경당ᄒᆞ는일을 이외에더큰죄악이업슬쥴로 싱각ᄒᆞ며 ᄉᆡ로이다른싱각이 가슴속에 번ᄀᆡ불갓치 왕ᄅᆡᄒᆞ니 오날々지여러ᄀᆞ지 견듸기어려운 고통(苦痛)을참고 지ᄂᆡ긧이 진실노 하ᄂᆞ님벌을젹당ᄒᆞ게 몸에밧은것이니 이후로는 무슴일을헌신젹(献身的)으로ᄒᆞ야 젼죄악도씻고 후일복락도 빌거시며 ᄂᆡ의몸은 ᄂᆡ의물건이오 또는하나님의물건이어ᄂᆞᆯ 다만ᄂᆡ의사졍에 졀박ᄒᆞᆷ만싱각ᄒᆞ고 하ᄂᆞ님이 벌을나리신후 다시마음을돌니게ᄒᆞ야 안신입명(安身立命)ᄒᆞᆯ곳을 엇게ᄒᆞ시는것은모로고 다만좁은마음에 스스로죽는ᄯᅡ에 나아가고져ᄒᆞ니 엇지하ᄂᆞ님의본의에 어그러짐이안이리오ᄒᆞ며 이제죽는듸임ᄒᆞ야 그윽히일졈미광(一點微光)을보앗더라 뇌(腦)는 일신에 물ᄉᆞᆯ릇ᄒᆞ여 더욱이 악가부터 불평ᄒᆞ든몸이 지금은 심히괴로우며 복통ᄭᅡ지겸ᄒᆞ야나며 복즁에아회는 돌니는모양이 젼일과는다르게 현져ᄒᆞᆫ지라 감안히싱각ᄒᆞ되 산뎜이보이는것이 안인가ᄒᆞᆷ에 별안간에 몸이달々썰니며 진히키어렵다 잠시만기다리면 이셰샹을 구경ᄒᆞᆯ것을 무죄ᄒᆞᆫ어린ᄋᆡ히ᄭᅡ지 나의죄악으로인ᄒᆞ야 한가지로 이몸에싸지는것이 하날이무셥고 ᄯᅡ이두려온싱각이 감동되야 망연히셔々잇기를 한참ᄒᆞ다가 임에결심ᄒᆞᆫ바를 도리키고 ᄌᆞᄒᆞ지안이ᄒᆞᆫ다 유셔도 우체로벌셔붓친몸이 다시살아셔 목숨을익긴죠소ᄭᅡ지 밧기슬코 하ᄂᆞ님ᄭᅴ도 ᄂᆡ천ᄇᆡ된이몸이 이외에죄를더지으면 얼마나더ᄒᆞ며 쥭

어도 하ᄂᆞ님ᄭᅴ ᄂᆡ친ᄇᆡ되야 져싱에가셔도 오히려악귀에게 무한ᄒᆞᆫ침노를 밧으라ᄒᆞ여도 감슈ᄒᆞ리라ᄒᆞ며다시ᄆᆞ음이 암々ᄒᆞᆫ칠야즁으로 드러간다.

이ᄯᅵ 리경ᄌᆞ의몸의 위ᄐᆡᆷ이 일슌간에잇ᄂᆞᆫᄃᆡ 홀연뒤으로부터 강즁으로향ᄒᆞ야ᄯᅮ여ᄂᆞ리ᄂᆞᆫ몸을 ᄯᅡᆨ붓드ᄂᆞᆫ 사람이잇더라

일편고심을 만경창파에 붓치고ᄌᆞᄒᆞ든 리경ᄌᆞ의몸을 이곳에셔구ᄒᆞᆯ사ᄅᆞᆷ은 나히오십여셰나되여뵈고 과이모양이 샹스러워보이지안이ᄒᆞᆫ 로파러라 그로파ᄂᆞᆫ ᄯᅡᆷᄯᅡᆨ놀나ᄂᆞᆫ 목소리로

「아 여보 이게 웬일이오」

리경ᄌᆞᄂᆞᆫ 발셔졀문졍신은 일어ᄇᆞ리고 반은밋친사ᄅᆞᆷ갓치 되얏ᄂᆞᆫ지라 몸을ᄯᅡᆨ리치며

「아이 이게누구요 남의옷을잔득잡고 놋치를아니ᄒᆞ니 죽으랴고ᄒᆞᄂᆞᆫ사ᄅᆞᆷ을 웨이리붓들고 귀치안케구러 어셔노오」

그로파ᄂᆞᆫ 힘ᄯᅡᆺ붓들고 놋치아니ᄒᆞ며

「누구신지ᄂᆞᆫ 모로겟쇼만은 ᄌᆞ쳐ᄒᆞ랴고ᄭᅡ지 마음을자실졔ᄂᆞᆫ 무슨ᄭᅡ닭은잇ᄂᆞᆫ일이오구려 그러치만 이할멈이보지못힛스면 모로겟지오만은 보고셔야그져남다려죽으라고 감안히ᄂᆡ버려돌수가잇소 아모럿턴지 우리집으로갓치가셔 자셔ᄒᆞᄂᆡ평을듯고셔 도라가야만ᄒᆞᆯ일이면 도라가시게ᄒᆞ오리

다 이왕죽기로 ᄆᆞ음을먹은담에야 오날죽으나 ᄅᆡ일죽으나 맛찬가지지 그리급ᄒᆞᆯ것이야 무엇잇소 그리고우리집은 머지도안소 져긔보이ᄂᆞᆫ 불 반짝〳〵ᄒᆞᄂᆞᆫ집인ᄃᆡ 다른사ᄅᆞᆷ은업고 늙은녀편네 두리만살고잇스니 조곰도념려말고 갑시다」

맛참구름버셔지ᄂᆞᆫ 틈으로빗치ᄂᆞᆫ 달빗에 리경ᄌᆞ의얼골을보더니 그아름답고가련ᄒᆞᆫ형상이 더욱이동졍심이 감발ᄒᆞ야

「뵈와ᄒᆞ니 언의량반의ᄃᆡ 셔아가씨인가본데 이게웬일이오 친가에 부모도계실터요 아모리엇지ᄒᆞᆯ슈업ᄂᆞᆫ 일이잇기로 죽기ᄭᅡ지ᄂᆞᆫ 너모과ᄒᆞ시지안소 아모러튼지 우리집으로 드러가심시다 집은루츄ᄒᆞ지만은……」

정이ᄯᅳᆨ々덧ᄂᆞᆫ 로파의간곡ᄒᆞᆫ말에 리경ᄌᆞᄂᆞᆫ 비로소ᄆᆞ음을돌니여 얼골을들어치여다보니 머리ᄂᆞᆫ반빅이넘엇스며 손에ᄂᆞᆫ염쥬를걸어ᄂᆞᆫᄃᆡ 그말ᄒᆞᄂᆞᆫ것과갓치눈에도 졍다온빗이보이며 ᄉᆞᄅᆞᆷ으로ᄒᆞ야곰 감사ᄒᆞᆫᄆᆞ음이 스ᄉᆞ로나오게ᄒᆞᆫ다 리경ᄌᆞᄂᆞᆫ 홀연일만가지의 설음이 일시에소사나와ㅣ 쇼리를질너울며 졍신을못차리고 그자리에업드러지랴ᄒᆞᄂᆞᆫ것을 로파가 간신히부츅ᄒᆞ야 벌셔리경ᄌᆞ의ᄆᆞ음이 돌닐줄ᄭᅡ닷고

「어셔 졍신차려갑시다 조곰만 내가더듸엿드면 큰일이날번ᄒᆞ엿슬걸 이것도 부쳐님이도아쥬신 인연인게오 자ㅣ어셔갑시다」

ᄒᆞ며 리경조의팔을세여잡으니 리경조는 아모말도업시 그로파에 의지ᄒᆞ야 발길만나려다보고 ᄯᅡ라간다

데ᄉᆞ십삼회

그로파의집은 그강변이니 집은비록 초가로ᄃᆡ 십ᄉᆞ오간되는 정결ᄒᆞᆫ집이라 그집ᄉᆡ지올동안에 길에셔 그로파의ᄒᆞᄂᆞᆫ말을듯건ᄃᆡ 조긔는 즁년에 남편을일코 홀로되야 친쳑에게로붓터 양조를ᄒᆞ얏더니 불합ᄒᆞ야 파양ᄒᆞᆫ후 다시셰상에는 밋고의탁ᄒᆞᆯ곳이업셔 불교나밋어 여싱을맛쳐고조ᄒᆞ야 홀로산즁쵸막갓치ᄒᆞ고 지ᄂᆡ는터인ᄃᆡ 본릭의식에는 파히군식디안이홈으로 심부름ᄒᆞᄂᆞᆫ 로파ᄒᆞᆫ아두고 두ᄂᆞᆫ은이가 한가이염불이나ᄒᆞ고 셰월을보ᄂᆡ노라ᄒᆞ며 그로파의셩은 김씨러라 김씨로부인은 리경조의손을 닉그러 방아릭목에안치고 요를ᄉᆡ라쥬며

「쟈 여긔좀 들어누오 긔운을좀진정히야지 우리집에는 이러케ᄂᆞᆫ은니 두사름밧게는 아모도업스니 죠곰도불안ᄒᆞᆫ싱각은 자시지마시오」

「아이 너모불안ᄒᆞᆷ니다」

ᄒᆞ며 간신이 입속으로말을ᄒᆞ나 긔운업시 자리우에업ᄃᆡ린다 김씨부인은 리경조의 긔운을슈습지못ᄒᆞᄂᆞᆫ 모양을보고

「여보 소쥬를조곰자셔보오 ᄒᆞᆼ긔가될터이니」

리경조는 ᄃᆡ답업는ᄃᆡ 그로부인은 엽헤안자잇는 로파를향ᄒᆞ야

마루에 나아가셔 소쥬한잔만 ᄯᅡ라가지고들어오게」

로파가 ᄯᅡ라가지고온소쥬를 손에들고 로부인은

「쟈 조곰자셔보오 ᄒᆞᆼ긔좀되게시리」

「네」

ᄒᆞ며 리경조는 ᄒᆞᆼ즁이산란ᄒᆞ야 ᄃᆡ답도일우지못ᄒᆞᆫ다

「쟈ㅣ 자셔요……」

여러번정다이 권ᄒᆞᄂᆞᆫ것을 물니치기어려워 경조는잔을마지못ᄒᆞ야 바다가지고 입살만취긴다

「의외에 근심을 세쳐드림니다그려」

「별말을다ᄒᆞᄂᆞᆫ구려 조곰도 그런싱각은 자시지말고 ᄂᆡ집ᄀᆞᆺ치알고게셔요 ……그러나 ᄭᅩᆺ갓흔졀무신네가 그게웬일이오 인제는 차ᄉᆞ그이야기나 좀 들어봅시다」

경조는 아즉도 가슴을진졍치못ᄒᆞ야 곳ᄃᆡ답을못ᄒᆞᄂᆞᆫ지라 로부인은 거듭ᄒᆞ야

「나는 당신을 오날쳐음이라도 엇젼일인지 다른사름ᄀᆞᆺ지안코 ᄂᆡ의쳔쳑이나되ᄂᆞᆫ것ᄀᆞᆺ치 마음이씨이ᄂᆞᆫ구려 이할미다려 무슴말슴을 ᄒᆞ든지 힉로울일은업스리라 나도그닥지 향방업ᄂᆞᆫ사름은아니요 말슴을안이ᄒᆞ시드릭도 ᄃᆡ강은짐작ᄒᆞ겟소만은……」

ᄒᆞ며 리경ᄌᆞ의허리아릭 빈를눈쥬어본다

「아니 당신이나다려 말ᄒᆞ기가 붓그러워셔 그리ᄒᆞ오만은 조곰도붓그러울 것업소」

김씨로부인의 친졀ᄒᆞᆫ말에 경ᄌᆞ는 ᄌᆞ초지종을하여도 숨기지아니ᄒᆞ고 눈물을 흘니며 ᄌᆞ긔의릭력과 셔병삼에게 속은것과 심지어 아히싸지빈리야기와 오날 ᄌᆞ쳐코자ᄒᆞ던ᄉᆞ단을 일々히말ᄒᆞ엿더라

그로부인은 동정을다ᄒᆞ야 드른후 그윽히눈물을지으며

「그말ᄉᆞᆷ은 다자셔이알아드럿소 ᄉᆞ셰가 그러ᄒᆞ게되니ᄉᆞ간 자쳐ᄒᆞ려는 싱각나기도 고이치안소 그러나 당신도지금말ᄉᆞᆷᄒᆞ셧거니와 죽는다ᄒᆞ는것은 죄에다죄를더ᄒᆞ는것이오 부모에게ᄃᆡᄒᆞ야도 불효에불효를 더세치는것이아니오 죄라ᄒᆞ는것은 ᄃᆡ잡고 ᄌᆞ복ᄒᆞ는것이 뎨일임닌다 당신일지라도 잘못ᄒᆞᆫ일을 부모압헤셔 회ᄀᆡᄒᆞ고 부모가용셔ᄒᆞ신후에는 그ᄯᅥ갓치 ᄆᆞ음이 죠흘ᄯᅥ가 어ᄃᆡ잇겟소 왼셰상사ᄅᆞᆷ이 당신의일을다알것도안이요 만일안다ᄒᆞ기로 손ᄭᅩ락질밧고 우숨취흘것은안이요 도로혀 불상ᄒᆞ다고눈흘지언정 가량ᄯᅩ 그러ᄒᆞ다ᄒᆞ기로 쟝ᄅᆡ가 아즉도머신터에 언제던지 젼에루명은 씨셔바릴수가잇지오 그런ᄃᆡ만일 당신일지라도 도라가보시오 그야말로 남들은 잇는말업는말흘것업시 지여ᄂᆡ셔 소문이왁자흘터이니 만일그물에

빠져죽으면 그잇흔날은 각신문지에 모다소문이나겟지오 아모려면 됴흔 소문이야나겟소 밤낫당신의일홈만 루명과흠게 셰샹에퍼질터이니 그러케 되면 당신의슈치뿐아니라 부모의일홈도들쳐날터이오 학교일홈도날터이니 그러케되면 그게무슨ᄉᆞᆯ이오 일이안그럿소 남붓그러우니 죽겟다고ᄒᆞ면 죽은후에는 쳣지로 부모의가슴에는 못이ᄇᆡᆨ힐터이오 셰샹에는 죽은후에 됴흔말을듯지못흘터이니 죽으려ᄒᆞ는것이 도로혀 더남부그럽겟소 진소위 조고만붓그럼을 참지못ᄒᆡ셔 큰붓그럼을사는격이안이요 그만ᄒᆞ면 당신도 아마알아 드를듯ᄒᆞ구려 응 여보안이그럿소 리처가」

뎨 사 십 ᄉᆞ 회

리경ᄌᆞ는 김씨부인의 친졀히충고ᄒᆞ는말에 자연이 감동되야

「네 그져지금말ᄉᆞᆷ은 다 오른말ᄉᆞᆷ이올시다 악가일은 지금싱각을ᄒᆞ여도 몸이웃ᄉᆞᆨᄒᆞ여짐니다그려 인제는 무ᄉᆞᆷ어려운일이 잇더릭도 죽을싱각은 아니ᄒᆞ겟ᄉᆞᆷ니다 나는인제 병원의간호부노릇이라도ᄒᆡ셔 젼에지은죄를 조곰이라도 속흘가흠니다」

ᄒᆞ며 쳬읍ᄒᆞᆫ다 김씨부인은 위션ᄌᆞ긔의말에감동되야 마음을돌님을다힝이여겨

「아미타불 인제는내ᄆᆞ음도 엇지조흔지모르겟소 무ᄉᆞᆫ간호부노릇이라도ᄒᆞ여셔 죄를속ᄒᆞᆫ다ᄒᆞ니 남에게젹덕ᄒᆞ는거시 하필간호부뿐이겟소 셰샹에는

셔병삼곳흔 워인만 잇는것슨안이라 아모조록 ᄆᆞ음을가라안치고 졍신을차리게ᄒᆞ오」

경즈는 긔운업시 다만네ㅣᄒᆞ고 대답ᄒᆞᆯᄲᅮᆫ이라

「그러면 당신은 아즉은 우리게계시오 다른데는 별로가실데도업고 누가 보아드릴사람도 업는모양이니 불편은ᄒᆞ더릭도 여기셔갓치 얼마동안이던디 디닉는거시 조흘듯ᄒᆞ오 나는당신을 남으로알디아니ᄒᆞ니 념려마시고 히산ᄭᅴ디라도 예셔ᄒᆞ시고 히산구원도 잘은못히도 남ᄒᆞ는ᄃᆡ로는 할터이니……그러나 ᄉᆞ직골은 긔별ᄒᆞ디은으시오 아마디금쯤은 야단법셕이낫겟소 사ᄅᆞᆷ을보닉셔 긔별ᄒᆞ디오 그리고ᄉᆡ골ᄃᆡᆨ에도 편디를다시붓치오……」

리경즈는 악가부터 눈쌀을찌푸리며 몸을진졍치못ᄒᆞ며 ᄇᆡ에손을다이고 몸을 폐엿다구부렷다ᄒᆞ는양을보고 김씨부인은

「웨 그리히 ᄇᆡ가압퍼셔 그리오」

「네ㅣ」

「그런데 멋달이나되얏소 응 당삭이되얏셔……」

「네ㅣ」

「아그리면 은니되얏소 히산졔구를차려야 ᄒᆞ겟소그려 ᄃᆡ단이압푸오」

「네……ᄭᅴᄭᅴ못견ᄃᆡ게압푸고 뎨일허리가 몹시곳아셔 못견ᄃᆡ겟셔오 그

리고어ᄃᆡ가압흔ᄃᆡ디향을 ᄒᆞᆯ슈가업셔요」

김씨부인은 한편으로 히산졔구를차리며 ᄯᅩᄒᆞᆫ편으로는 사직골노사람을보닉여 긔별을ᄒᆞ며 자기는경즈를붓들고 히산을식인다 경즈는정신업시 김씨부인에게 ᄆᆡ달녀 신음ᄒᆞ는소ᄅᆡ만 들니더라

이리신고ᄒᆞ기를 한참ᄒᆞ더니 홀연어린ᄋᆡ히우는소리가 방으로좃차나니 이는경즈가 슌산ᄒᆞᆷ이러라 김씨부인은 자기가손자나본듯시 됴와ᄒᆞ며

「고초박이를 나앗ᄭᅮ면 싱기기나 좀잘생겻나 코날이셔고 눈이어글어글ᄒᆞᆫ것시 ᄯᅩᆨ 져의모친을달마ᄭᅮ면 아이ᄯᅩᆨᄯᅩᆨ두ᄒᆞ여라 여보정신차리오 옥동자갓흔아달을나앗소」

ᄒᆞ며 쳔의덥허 아릭목한편으로누이니 셰샹에 처음으로 나온손님은발셔 고요히잠이드러 숨소리만식식ᄒᆞᆫ다

이ᄯᅢ 사직골보닛던 사ᄅᆞᆷ이 그곳할미와 한가디와셔 그할미는 눈물을비죽〳〵 흘니며 심부름갓다가와셔 유셔써노은것을보고 놀닉던일쟝셜화를ᄒᆞ며 엇디ᄒᆞᆯ줄을모르고 속만ᄃᆡ오던차에 맛참사ᄅᆞᆷ을보닉셧기에 갓치싸라왓노라ᄒᆞ는디라 그러나 경즈는 여러달동은 심녀로짓친ᄭᅭ혜 히산을ᄒᆞ얏는디라 정신업시혼ᄎᆡᆷ ᄒᆞ여 누엇는ᄃᆡ 만일샤직골로파가 왓다ᄒᆞ면 필연젼일생각을 다시렴두에일으켜 심회를 됴치아니ᄒᆞ게ᄒᆞ리니 그러면 산후신데에 히로울가ᄒᆞ며 그날노는보

지못ᄒᆞ게ᄒᆞ엿더라
그잇튼날 김씨부인은 경조와의론ᄒᆞ고 그부친에게 쥭지안이ᄒᆞ고 김씨부인집에잇슴을 젼보로긔별ᄒᆞ엿더라
리경조는 이졔야 안신입명ᄒᆞᆯ쌍을엇어셔 젼일과갓치 번뢰ᄒᆞ는일은업스나 출산후에 피를만히쏘닷는고로 몸이심히쇠약ᄒᆞ야 젹을뿐안이라 오히려 과거와미릭의 근심이업지못ᄒᆞᆷ으로 비상ᄒᆞᆫ신경과민(神經過敏)을일으켜 괴의ᄒᆞ히스데리ᄂᆞᆫ라ᄒᆞ는 열병이되는ᄃᆡ 일으럿더라

뎨 사 십 오 회

젼일부터도 리경조는 슈심으로몸이슈쳑ᄒᆞ얏더니 이번산후 피를과히쏘든후로는 더욱알아보지도못ᄒᆞ게 슈쳑ᄒᆞ야 눈은세져셔 쌍샙풀이 눈샙풀이 더구나현져히보이며 눈빗슨불교 목조는 사ᄅᆞᆷ을향ᄒᆞ야보는것이 황당ᄒᆞ여보이며 쌈에살은여위고 혈식은됴곰도업스니 잠간보건ᄃᆡ 불시에한두살더먹은 사ᄅᆞᆷ갓흐되 아ᄅᆞᆷ다운얼골은 파리ᄒᆞ되 오히려아람다오며 단장ᄒᆞ지아니ᄒᆞᆫ삼스단갓흔 머리는 갈갈히흣트져셔 귀에덥힌모양도 더욱이어엽부다
리경조는 신후여증으로 ᄶᅥᆨᄶᅥᆨ로졍신을일코 섬어도ᄒᆞ며 희로이락을 ᄶᅥᆨ를일어우슬ᄶᅥᆨ에 울기도ᄒᆞ며 울ᄶᅥᆨ에셩도ᄂᆡ여 거의ᄂᆡ의원심을일코 실셩ᄒᆞᆫ사ᄅᆞᆷ갓흘ᄶᅥᆨ가 죵죵잇ᄂᆞᆫ지라 김씨부인은 크게염녀ᄒᆞ다 경조는 쇠년이안이로ᄃᆡ 어린ᄋᆡ히

ᄀᆞᆯ을만ᄒᆞᆫ 유도가젹어 못먹이고 우유로써기르다가 유모를구ᄒᆞ려ᄒᆞ더니 이삼일을지ᄂᆡᆫ후 ᄒᆞ로는김씨부인의집에 붓쳐잇ᄂᆞᆫ할미의ᄯᅳᆯ이 초조왓ᄂᆞᆫᄃᆡ 지금살기는 젼라남도목포에셔 여러히젼부터 살더니요ᄉᆞ이 나온지이십일쯤 된아히갓ᄂᆞᆫ이를일코 화도나고 모친도오릭못보앗슴으로 단이려올나왓던터이라 또ᄂᆞᆫ위인이 졍직ᄒᆞ고 근실ᄒᆞ야 밋음직ᄒᆞᆷ은 그집쥬인김씨부인도 아ᄂᆞᆫ터인고로 경조와의론ᄒᆞ야 응락을밧은후에 이간난어미를 아즉유모로졍ᄒᆞ여 졋을먹이게ᄒᆞ더라
김씨부인은 어린ᄋᆡ히를안고 어르며 경조에압헤와셔
「지금우리아기가 간난아ᄆᆞᆷ졋을 잘득먹엇다오 이것좀보아 눈을바로둥그럿케ᄯᅳ고 하々ᄯᅧᆨ 져의어머니를달머셔 엇져면 그럿케도 몹시달머슬가쟈ㅣ어머니 나좀보시오」
ᄒᆞ며 압흐로ᄃᆡ리미니 경조는 한참드려다보더니 빙그럼이우스며
「나는 참 지각업ᄂᆞᆫ짓도힛지요 엇지ᄒᆞ자고 그런싱각을 ᄂᆡ쓸가요 져마님이 나를구원히주시지 안이ᄒᆞ엿드면 이것시공연히 죽을번ᄒᆞ엿지」
「글셰 그일은 그져이져바리랴니ᄉᆞ간 그리ᄂᆞᆫ구려 몸에히로와요」
「네 이져바리지요 인졔ᄂᆞᆫ우리아버지나 한번맛나뵈왓스면 나ᄂᆞᆫ더원이업겟셔요」

경조의리석이 구장패락홈을보고 김씨부인은 깃거ᄒᆞ여
「아버니씌셔도 아마이삼일안으로 올나오시겟지요 올나오시거던 부모의 ᄆᆞ음을편안히ᄒᆡ드리도록ᄒᆞ오 그게뎨일효도된다 졀문식는 누구던지 잘못ᄒᆞ는일이만치 엇지잘ᄒᆞ기만ᄒᆞ겟소 아버니도 뎨일어엽분 아기를보시면 오쟉죠화ᄒᆞ시겟소」
ᄒᆞ며 경조를위로ᄒᆞ는말은 귀에들니지도안이ᄒᆞ는지 경조는 방안에드러와셔 날아다니는 나븨만바라보고잇더니 별안간에 쇼릭를크게질너 김씨부인을 부르며
「어이고 뎌나븨좀보시고 우수어죽겟네 뎌나븨잡어셔 어린놈쥬어보시오」
김씨부인은 경조의얼골을 한참보더니 실셩ᄒᆞᆫ사롬ᄀᆞ치씩노는지라 쌈쏙놀ᄂᆡ여
「그거시 무슨쇼리요 어린아기가 아즉아모것도 모르는ᄃᆡ 나븨는잡아주어 무엇ᄒᆞᆫ단말이오」
경조는다시
「나븨는 ᄋᆞ히들이 가지고놀면 못쓴다지오 잡아쥬어도 쓸ᄃᆡ업구려 아 아ㅣ날아가바렷네 그만」
ᄒᆞ며 나븨날아가는것슬 바라보더니 나죵에는 ᄉᆞ라업시 눈물을ᄭᅮᆨᄭᅮᆨ떠러트린다 김씨부인은 경조의모양을 가긍히녁이여 이윽이보다가

「나븨가는거시 그러케셜을것 무어시요 ᄆᆞ음을좀진졍ᄒᆞ오 괴운을공연히들ᄊᆡ우지말고」
리경조는 다시무슴 싱각을ᄒᆞ엿는지
「아바지씌셔 무엇시라고 괴별이왓습닛가」
「아ㅣ니 아즉아모괴별도업소」
「나는 우리아바지를 뵈와야만 홀가요 아바지를엇더케보나 아이나는못보겟셔 아이나는 못보겟셔 졍말좀못보와요 당신이엇더케든지 말슴을잘ᄒᆞ셔셔 도로ᄉᆡ골로 나려가게ᄒᆡ쥬시오 내가웨어져게 쥭지아니ᄒᆞ엿슷가」
목조가 휘황ᄒᆞ교 호읍이쳔촉ᄒᆞ며 번조ᄒᆞ야 ᄒᆞ는것을 김씨부인은 몰ᄉᆞ럼이 안져바라보며
「웨 앗가는 아버지만뵈오면 원이업겟다고ᄒᆞ더니 그리ᄒᆞ오」
경조는 ᄃᆡ답업시 두손으로 얼골만가리운다

뎨ᄉᆞ십륙회

리경조는 실셩ᄒᆞᆫ것이안이라 일시감졍의변화가심ᄒᆞ야 어린아ᄒᆡ와ᄀᆞ치 우습지도안이ᄒᆞᆫ일에 우슈어셔 못견ᄃᆡ다가 홀연ᄉᆞ라업는일에 슬어져가는듯시 호읍ᄒᆞ니 지금은 비록즁치아이ᄒᆞ다ᄒᆞ나 날이졈々오릭게되면 큰병이되지안이홀지 도알수업슴으로 김씨부인은 의ᄉᆞ를쳥ᄒᆞ려 사롬을보ᄂᆡ엿더니 오후에오겟다ᄒᆞ

는 회답을가지고도라왓더라
벽상에괘종이 열흔시를보ᄒᆞ는ᄃᆡ 리경ᄌᆞ는 긔운을차리지못ᄒᆞ고 방안한구셕에
셔 누어정신업시자고 김씨부인은 ᄉᆞ직골로파와 간난어미와 어린아히를어르
며 셔로이약이를ᄒᆞ고잇더니 문밧그로셔
「이리오너라」
ᄒᆞ는목소릭나는지라 하인로파를ᄂᆡ여보ᄂᆡ여보니 년긔는 오십여셰나 되여보이
는 남ᄌᆞ인ᄃᆡ 머리는반빅이되고 이마는 ᄃᆡ머리졌는ᄃᆡ 뒤에는 지게ᄭᅮᆫ이가방과
겻도와 보통이등속을싸셔 한짐잔ᄯᅳᆨ지여놋코 손에는 수건을들고 이마의셔 흐
르는ᄯᆞᆷ을 자조씨스며 문에나와션로파를보고
「여긔가 김소사ᄃᆡ이오」
「네 그럿슴니다」
「나는 광쥬사는리긔쟝이라 ᄒᆞ는사ᄅᆞᆷ인ᄃᆡ ᄂᆡ쓸년이 여긔와 신세를지고잇
다ᄒᆞ는긔별을듯고 올나온길이오」
김씨부인은 안마로에셔々 발셔알아듯고
「아이고 여보게할멈 그량반게 어셔이리드러오십시ᄉᆞ고엿줍게」
리기쟝은 드러오라는말에 ᄯᅳᆯ의얼골을 잠간이라도 어셔볼싱각에 남의집안에
드러가는것을 조곰도 ᄉᆞ양치아니ᄒᆞ고 문을썩드러스니 반가히ᄂᆡ다르며

「말ᄉᆞᆷ은 ᄯᅡ님게노ᅳ드럿더니 오날이야 쳐음뵈읍슴니다그려 어셔이리로
올나오시지요 ᄂᆡ가쥬인이올시다 ᄯᅡ님이요시날마다 아버님을나오시기를
엇지도기다리는지 모로겟지오」
리기쟝은 이마의ᄯᆞᆷ만씨스며
「아이 그러심닛가 고마운치사는 벌안간에 다흘슈업스니 ᄎᆞᄎᆞ말ᄉᆞᆷᄒᆞ겟슴
니다」
「어셔안지시기요 찬々히ᄯᅡ님지ᄂᆡ이약이를 ᄒᆞ오리다」
「네 나는그져 ᄭᅮᆷ인지 싱시인지몰나요 반은밋친것갓슴니다 셰샹에도모지
어미아비ᄀᆞᆺ치 ᄌᆞ식에게 눈이어두운것은 업는게야요 어졔々지라도 ᄯᅳᆯ년
이셔울셔 공부만잘ᄒᆞ고 잇거니ᄒᆞ얏지 셔방을엇어가지고 이모양되얏슬줄
이야 엇지알아겟슴닛가 기가막혀 나원게다가 ᄋᆞ히々지비교 나죵에는 사
나희에게 소박々지마잣다니 잠시동안이라도 남ᄒᆞ는것은 다히보앗습듸다
그려 허々기가막혀 우숨이나오는군 ᄯᅳᆯ년이젼부터 그러치안이ᄒᆞᆫ줄로알
앗는ᄃᆡ 엇지히셔 못된귀신이 씨엿던가 웬일인지 나는원분ᄒᆞᆫ지 원통ᄒᆞᆫ지
설은지 도모지가리를 잡을수가업더니 편디를ᄎᆞ々보아가려가노라니ᄉᆞ간
나는남이붓그러워 죽노라ᄒᆞ얏단말이야요 ᄂᆞ는엇더케 깜짝놀닛던지 졍신
이아득ᄒᆞ여디옵듸다 죽다니무슨소린가 아모리 부모々르게 셔방을엇々다

ᄒᆞ기로 이아비가 그다지몹시 싹지질리도업는ᄃᆡ 도ᄃᆡ체를말ᄒᆞ자면 계집사ᄅᆞᆷ에게 학문이당ᄒᆞᆷ닛가 더구나 셔울올녀다가 혼자ᄂᆡ버려둔거시 다 잘못이지 셰샹사ᄅᆞᆷ을 무엇이라고ᄒᆞ던지 상관ᄒᆞᆯ것이잇나 남붓그럽거든 아모도모르는 다른곳으로 가셔살지 ᄂᆞ는ᄯᅳᆯ다리고 그ᄭᅳ지라도ᄒᆞ려는 이아비의ᄆᆞ음을 아지못ᄒᆞ고 그것시 무슨디각업는짓인가ᄒᆞ고 한ᄎᆞᆷ실셩ᄒᆞ엿지요 날ᄀᆡ가잇스면 날아ᄅᆡ도 가련만은 기차로가더ᄅᆡ도 그동안에는 발셔죽엇스려니ᄒᆞ여 엇절줄을모르던차에 ᄃᆡ에셔붓치신뎐보가와셔 ᄯᅳᆯ년이 무ᄉᆞ이잇는줄을알고야 마음이훌연히셔 숨을좀돌낫슴니다 졍말당신은 이ᄯᅳᆯ살녀쥬신은혜ᄲᅮᆫ아니라 이사ᄅᆞᆷ의목숨ᄭᅳ지 살녀쥬신심이니 이은혜는 빅골이되기로 엇지이져바리겟슴닛가 그ᄅᆡ 그뎐보보고셔는 곳써ᄂᆞ셔 디금룡산뎡거장에셔ᄂᆡ려셔 이리로ᄎᆞ자드러오는길이올시다」

ᄒᆞ며 리긔쟝은 길게한숨지으며 붓ᄎᆡ질을헐々ᄒᆞ고잇다

뎨ᄉᆞ십칠회

김씨부인은 어버이된사ᄅᆞᆷ의 마ᄋᆞᆷ이 걱졍과깃거ᄒᆞᆷ이 과연그러ᄒᆞᆯ듯시싱각ᄒᆞ야 고요히 리긔쟝의ᄒᆞ는말을 듯기를다ᄒᆞ고

「쳔만에말ᄉᆞᆷ을 다ᄒᆞ심니다 ᄯᅡ님구한것은 젼싱에무슨인연이잇셧든게야요 그러치아니ᄒᆞ고야 엇더케그럿케 이상스럽게 일이됨닛가

「그러니ᄭᅳ ᄯᅳᆯ년이 져강에빠져셔 죽으랴고ᄒᆞ는것을 당신맛ᄎᆞᆷ보시고 구ᄒᆞ셧슴니다그려」

「네ㅣ 그릿셔요 그날밤이 일기가엇지더운지 하도 더웁길네 문밧게나셔々바ᄅᆞᆷ을좀쏘일가ᄒᆞ고 강가에나셧노라니ᄉᆞ간 철로다리근쳐에셔 웬사ᄅᆞᆷ의 그림ᄌᆞ가보이며 ᄉᆡ々로ᄂᆞᆺ기는 소리가나기에 이상스러워셔 갓가이가셔보니ᄭᅡ 당쟝에강을향ᄒᆞ야 빠지려ᄒᆞ겟지요 그ᄅᆡ셔 와락덤벼들어붓잡고졔반으로위로ᄒᆞ여 집으로다리고왓지오」

「아이 은혜를엇지다 갑슴닛가 이은혜는 우리부녀두사ᄅᆞᆷ이 쥬기로엇지잇겟슴닛가」

「그런말ᄉᆞᆷ은 다시두번도마셔요 은혜가다무엇심닛가 그러나 ᄯᅩ반가워ᄒᆞ실말ᄉᆞᆷ이 ᄯᅩᄒᆞᆫ아잇슴니다 그날밤에별안간에 슌산싱남을ᄒᆞ고 아히가싱기々나 좀잘싱겻나요」

리긔쟝은 깜짝놀ᄂᆡ는모양으로

「아 아들을다나앗셔요 당신게는점々신셰만더세치고 참불안ᄒᆞ외다」

「웨 망녕이올시다그려 신셰가다무엇시오닛가 나는친손ᄌᆞ나본것ᄀᆞᆺ치 마음에죠흔걸이오」

「그러나ᄯᅳᆯ년은 어ᄃᆡ잇슴닛가 얼골이나좀보겟슴니다」

「네 져건너방에누엇스니 들어가셔보시지요 그러나 여러달을두고 근심ᄒᆞ든끗헤 또히산을ᄒᆞ야셔 정신을차리지못ᄒᆞ고 셤어를ᄒᆞ고 간간이실셩ᄒᆞᆫ 사람ᄀᆞᆺ흐니 보시거든 ᄭᅮ짓지마시고 듯기됴케말슴ᄒᆞ시지오」

「아모렴 그러치요 걱졍은 죠곰도안이ᄒᆞ겟슴니다」

리경조는 조기부친이 ᄯᅳᆯ을ᄎᆞ자멀니올나온줄도 아지못ᄒᆞ고 오히려 벼ᄀᆡ를 놉히ᄒᆞ고 곤히잠드럿는지라 지금김씨부인과 한가지로드러온 리긔장은 경조의 모양을얼풋봄이 비록산후라 슈쳑ᄒᆞ얏스려니와 얼골을 아라보지못ᄒᆞ도록 초최ᄒᆞ야 젼일에잇든어엽분 어린틱도는 조곰도볼슈가업는지라 리긔장은 그모양을보고 우션가슴이나려안즈며 경조의버ᄀᆡ머리에 펄셕쥬져안즈며 눈물이ᄭᅮᆨ々써러진다

「이익 경조야 아버지 여긔왓다」

벼ᄀᆡ머리에셔 짓거리는 사람의소리에 경조는 ᄭᅮ던ᄭᅮᆷ을깜짝씨여 눈을번듯쓰고 부친의얼골을 치여다보더니

「아이고머니나ㅣ」

ᄒᆞ며 두손으로얼골을가리우고 도라눕더니 홀연기졀ᄒᆞ야 인ᄉᆞ를찰이지못ᄒᆞᆫ다 집안이 깜ᄭᅮᆨ놀ᄂᆡ여 의ᄉᆞ를쳥ᄒᆞ려 사람을보ᄂᆡ며 환약을가러셔 입에흘녀너으며 슈족을줌을너 이윽ᄒᆞ더니 경조는간신히 숨을돌니고 졍신을차려 눈을쓰는

지라 리긔장은 숨을도르고」

「오 이익 졍신차렷ᄂᆞ냐 아버지 여기잇다 응」

말과ᄒᆞᆫ가지로 더욱눈물이 경조의얼골에 ᄭᅮᆨ々써러진다 경조는부친의 얼골을 이상스러이 한참치여다보더니

「당신은 누구요ㅣ」

이ᄯᅴ에 리경조의눈은 벌셔변ᄒᆞ야 온젼ᄒᆞᆫ정신을 일엇더라

뎨 사 십 팔 회

경조는의ᄉᆞ의들어오는 모양을보더니 ᄉᆞᆷᄭᅮᆨ놀ᄂᆡ여 목조가삽시간으로변ᄒᆞ여지며 지금ᄭᅡ지 어르고잇던어린ᄋᆡ히를 황망히엽헤나려 노으며 쥬인김쇼사를불너

「아이고 쥬인아즈머니 이아히좀 엇다가잘감츄어쥬시오 어셔〳〵감츄어쥬시오 셔병삼씨가 지금왓소」

김소ᄉᆞ는 어린ᄋᆡ히를 얼는바다안고

「여보 그량반은 셔병삼씨가아니라 의원손님이오 조셔히보구려」

「네 셔병삼씨가 의사가되여왓셔요」

ᄒᆞ며 의ᄉᆞ의얼골을 치여다보며

「셔방님은 엇지히셔 여긔를오셧쇼 나는당신ᄀᆞᆺ치무졍ᄒᆞᆫ량반은 다시보기 도실소 어셔가시오 당신이 아마이ᄋᆡ히를 쎄셔가랴고 오신게구려 공연이

남의어린아희다려다가 ᄂᆡ외분가라가며 몹시굴녀구 이아희는 ᄂᆡᄌᆞ식이야
당신에게는 조곰도상관이업스니 어셔가오」
의ᄉᆞ는 익의병ᄌᆞ의 ᄃᆡ강증셰는 들엇는고로 경ᄌᆞ의ᄒᆞ는모양을보고도 그리놀
ᄂᆡ지도안이ᄒᆞ며 경ᄌᆞ의말다ᄒᆞ기를 기다리여 친졀ᄒᆞ게 경ᄌᆞ를바라보며
「당신ᄭᅴ셔 아마잘못보셧나보오 나는의원이올시다 어듸 믹이나잠간보게
ᄒᆞ사오」
경ᄌᆞ는 여젼히 의ᄉᆞ의얼골을 치여다보고
「나는당신에게 ᄭᅳᆨ 속앗셔요 인졔는무슨소리를ᄒᆞ여도 속지안이ᄒᆞᆯ테야요」
ᄒᆞ며 쇼리를크게 질너말ᄒᆞ고 무셔운것을 만낫것갓치 두손으로 얼골을가리우
고 업다린다
리긔장은 경ᄌᆞ의ᄒᆞ는양을 믹업시안져셔보고잇더니 의원을나직이불너
「ᄯᅳᆯ의병증셰가 밋칠디경은 아니오닛가」
ᄒᆞ며 념녀가되여 못견ᄃᆡ는 모양이라 의ᄉᆞ는 예ᄉᆞ로ᄃᆡ답ᄒᆞᆫ다
「안이요 그러치는안쇼 념녀ᄒᆞ실것도업쇼 잇다가도 ᄯᅩ 진찰ᄒᆞ여보려니와
지금ᄃᆡ강본증셰로도 집증은ᄒᆞ겟쇼이다 그러나당신이 이병인의 부친되시
는량반이시지라지요 그러면 잠간조용히 말숨ᄒᆞᆯ말이잇스니 조용ᄒᆞᆫ방으로
잠간동안뵈왓스면 좃겟소」

「그러면 져안방으로가셔々 말숨ᄒᆞ시지오 그방에는 아모도업슴니다」
ᄒᆞ며 김쇼ᄉᆞ는 리긔쟝과의ᄉᆞ두ᄉᆞᄅᆞᆷ을 그리로인도ᄒᆞ고 ᄌᆞ긔는리경ᄌᆞ를간호ᄒᆞ
고잇다 리긔장은 얼골에 슈식이가득ᄒᆞ야
「ᄯᅳᆯ의병이 암만ᄒᆞ여도 위즁ᄒᆞ지요……」
의사는 아모걱졍업는것ᄀᆞᆺ치
그리념녀ᄒᆞ실병은안이요 그런ᄃᆡ 잠간엿쥬어볼것은 ᄃᆡᄂᆡ에혹시 실셩ᄒᆞᆫ량
반이계시지안이ᄒᆞ엿슴닛가」
「안이요 그런일은 업슴니다」
「그러면 조곰도념녀ᄒᆞ실거시업소 혹시유젼ᄒᆞ는병이나 안인가ᄒᆞ고 엿쥬
어보는말숨인ᄃᆡ 그러치안이ᄒᆞ면 아모걱졍업소 산후에는 혹시이러ᄒᆞᆫ병이
나는사ᄅᆞᆷ도잇스닛간……그러나 내가지금진찰ᄒᆞ여 본걸로말숨ᄒᆞ면 희산
젼부터 발셔「헤스데리」라ᄒᆞ는병이잇셔는ᄃᆡ 여러가지근심으로 ᄆᆞ음을슈
구로히ᄒᆞ야「헤스데리」가변ᄒᆞ여 지금은 우울증(憂鬱症)이라는병이되얏는
ᄃᆡ 이우울증이라ᄒᆞ는병은 극히경ᄒᆞᆫ 졍신병(精神病)이라ᄒᆞ야도 가ᄒᆞᆫ거시
라 무슨일에던지 한번단々히ᄆᆞ음을 츙동여노으면 글로부터 밋칠징셰가
싱기는법이오 그러나 ᄯᅡ님의병환으로말ᄒᆞ면 증셰는 발셔 우울증이지ᄂᆡ
여 졍신병이 되려ᄒᆞᆫ는ᄃᆡ 별안간에 당신을보고 ᄆᆞ음을격동ᄒᆞ여노아셔 홀

연졍신착란이되야셔 졍신병이되얏스나 극히경혼중셰닛스간 념녀되지안이ᄒᆞ오 치료만잘ᄒᆞ면 곳쾌복이되지요 지금부터 병만더ᄒᆞ지아니ᄒᆞ도록 죠셥식이는것이 뎨일필요ᄒᆞ고 첫지는 병조의ᄆᆞ음을 요동치안이ᄒᆞ게ᄒᆞ시오 그리고요혼방에 종용히잇스면 조연졍신이 회복되고 병도감셰가잇슬터이니 조곰만감셰가되거든 괴후죠코 한젹혼곳으로 피졉가셔 치료ᄒᆞ는것이됴흘듯ᄒᆞ오 이병은급히 치료ᄒᆞ려ᄒᆞ면 안이될터이니 쳔쳔이쾌복ᄒᆞ기를바라시오 악가도말슴ᄒᆞ엿거니와 병조의ᄆᆞ음을 겨동케ᄒᆞ지는말도록 쥬의를ᄒᆞ는것시 뎨일약이니 그리아시고 아모죠록 죠심ᄒᆞ여ᄒᆞ시오 일간 ᄯᅩ와셔 한번더진찰은ᄒᆞ리스나 큰 념녀는업스니 격졍마시오」

「이익 경조야늬다 아버지야 응 나를모른다 ᄒᆞᆫ단말이냐 조셔히얼골을보아라 내야나」

ᄒᆞ며 늬여미는 리기쟝의얼골을 경조는 휘황ᄒᆞᆫ목조로 ᄒᆞᆫ참바라보고잇더니 쌀쌀우스며

「하하 나는 이런사름은 당초에몰나 웬스름이야」

ᄒᆞ며 ᄯᅩ 다시부친의얼골을 익히드려다본다 리기쟝은 의외에 ᄯᅳᆯ의모양을보고 가슴이 무여지는것ᄀᆞᆺᄒᆞ야

「이익 경조야 늬얼골을 모른단말이냐 이게원일이냐 이비의얼골을 알아

보지못ᄒᆞ여」

리경조보다 그부친이오히려 밋칠것ᄀᆞᆺ치 의를쓰건만은 경조는눈ᄲᅩ리로도 보지안이ᄒᆞ고 실실웃기만ᄒᆞᆫ다 김씨부인도 젼보다 가장심홈을 념녀ᄒᆞ야 경조를 부르며

「그러면 나는누구요 늬얼골은알아보겟소」

ᄒᆞ며 손으로 조긔의얼골을가라치니 경조는얼픗

「쥬인마늬님이지 누구야요」

「자ㅣ 늬얼골은 그러케잘아라보면셔 이량반얼골 몰를리가잇게소 이양반은 당신이노ㅣ기다리든 아버지시라오」

경조는 사면휘휘돌아보더니

「아버지 아이붓그러워 나는아버지볼슈업셔요 우리아버지 좀시골로 쥬인마님이 보늬쥬셔요 아버지를 맛나볼것ᄀᆞᆺᄒᆞ면 진작죽지 어셔보늬시오」

「아버지는 그압헤계신데 그리ᄒᆞ오 여보졍신을차리시오 아바지가 ᄲᅮ지럼ᄒᆞ시지안은다니 념녀마오」

「이익경조야 지금와셔 늬가너다려 무슨ᄲᅮ지럼을 ᄒᆞᆯ니가잇나냐 념녀말고 아바지ᄒᆞ고 한번불너다고 응」

김씨부인이 경조의얼골을 다시드려다보며

「인제야 아버지 얼골을알겟소」
경조는 오히려 머리를흔드며
「우리 아버지는 충청도공쥬게신데 올나오시기는 언제올나오셔요 암만그리힉도 나는안이속아요」
ᄒᆞ며 홀젹〳〵눈물을흘닌다
리긔장은 이모양을보고 맑은졍신이 다빠지고 얼빠진사롬갓치 멀거니안져셔
김씨부인의 얼골을바라보며
「이익가 밋쳣슴니다ㅣ」
「아마별안간에 당신을뵈압고 놀닉셔 상긔가되얏나보외다 조곰잇스면 원
졍신이도라오겟지요 너무념녀마시요」
리긔장은 근심이 얼골에가득ᄒᆞ야 믁々히안졋는ᄃᆡ 방안은고요ᄒᆞ야 경조의열
긔쓴 슘소리만그렁々々ᄒᆞ는ᄃᆡ 맛참안ᄉᆞ방에셔 깜짝놀닌사롬갓치 별안간에
얼골을들며
「아이고 아기를 누가져러케울닐가 가엽셔라 아마동리아힉들이와셔 그리
ᄒᆞ지오 쥬인아즈머니 어셔가셔 그아힉들좀 쏫차닉시오」
김씨부인눈에 눈물이 그렁〳〵ᄒᆞ여 경조를보며
아가는 간난어멈ᄒᆞ고잇스니ᄉᆞ간 염녀업스니 걱졍마오」

경조는 다만입으로
「어셔〳〵」
지촉을ᄒᆞ는지라 김씨부인은 어린ᄋᆞ힉를 다려다보이면 졍신이진정될가ᄒᆞ야
안ᄉᆞ방으로 건너가셔 간난어미가 안고잇는 어린ᄋᆞ힉를 바다가지고 건너와셔
경조의품에 안겨쥬니 경조는 바다안고 아힉을드려다보며 쌈을ᄃᆡ이며
「오 아가〳〵우지마라 누가너를 귀치안케ᄒᆞ던냐 아이불상힉라 셔병삼씨
가 그리ᄒᆞ던냐 그리게너다려 셔병삼씨겻헤는 가지말나고 일너두엇지 웨
갓드란말이냐 거긔는아쥬 너를미워ᄒᆞ는무셔운 녀편네가잇셔 다시는이져
바리고라도 가지마라 응ᄋᆞ가」
리긔쟝은 쳐음으로보는 손자의모양이 긔특ᄒᆞ기도ᄒᆞ나 경조의졍신이업시 어
린ᄋᆞ힉를다리고 루々히일으는말을 감안이안져셔 듯고잇다가 그 모양을 참아
다보지못ᄒᆞ여 교ᄀᆡ를돌니여 쓸압흘 나려다보고 김씨부인은 고ᄀᆡ를슉이
고안져 홀젹〳〵ᄒᆞ고잇다
이ᄯᅢ에 악가청ᄒᆞ엿던 의ᄉᆞ가 지금에야 일으럿더라

뎨 오 십 회

의ᄉᆞ를돌녀보낸후 발셔날이져물엇는지라 방한아를치우고 홀로누어 경조의신
셰와 조긔의팔조를 무슈히한탄ᄒᆞ며 더욱이 셔병삼의 잔잉박힝ᄒᆞᆫ청년으로ᄒᆞ

여 ᄌᆞ긔의 가쟝사랑ᄒᆞᄂᆞᆫ 녀식으로ᄒᆞ여곰 이와ᄀᆞᆺ흔누명에 ᄲᅡ지게ᄒᆞᆫ일을 ᄉᆡᆼ각
ᄒᆞᆷ이 분ᄒᆞᆫᄆᆞ음에 그져잇슬슈가 업슬ᄲᅮᆫ안이라 졔일유ᄋᆞ의 쟝ᄅᆡ에ᄃᆡᄒᆞ야 셔병
삼의집과 크게담판ᄒᆞᆯᄉᆞ건이 잇ᄂᆞᆫ고로 날이발그면 곳셔병삼의집으로 ᄂᆡ려가
기로 결심ᄒᆞ엿더라
그잇튼날 리긔쟝은 과연힝리를 슈습ᄒᆞ여가지고 룡산셔긔ᄎᆞ를타고 ᄃᆡ구로향
ᄒᆞ야 ᄯᅥ나려ᄒᆞᆯ시 위션 셔병삼과 리경자의 결혼식을 거힝ᄒᆞ든목ᄉᆞ를ᄎᆞ자보고
져ᄒᆞ엿더라 그ᄂᆞᆫ다름이안이라 목ᄉᆞ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은 하ᄂᆞ님의ᄯᅳᆺ을 즉졉으로 셰
상사ᄅᆞᆷ에게 젼ᄒᆞ여쥬ᄂᆞᆫ 즁ᄃᆡᄒᆞᆫ칙임을 가진사ᄅᆞᆷ이여ᄂᆞᆯ 졍결무흠ᄒᆞᆫ 남의쳐녀
를속이여 거즛결혼식을 거힝ᄒᆞ얏스니 그와ᄀᆞᆺ흔 부도덕ᄒᆞᆫ목ᄉᆞᄂᆞᆫ 당쟝에 면피
를ᄭᅡᆨ가셔 셰샹에츌두를 ᄒᆞ지못ᄒᆞ게만들고ᄌᆞᄒᆞ야 위션ᄃᆡ구로 ᄯᅥ나가기젼에
그교회를 ᄎᆞᄌᆞ갓더니 셔병삼과 틴근ᄒᆞᆫ그목ᄉᆞᄂᆞᆫ 그외에다른부졍ᄒᆞᆫ 힝위로 인
ᄒᆞ야 교회로부터 방츌ᄒᆞ엿다 ᄒᆞᄂᆞᆫ고로 리긔쟝은 할일업셔 발오ᄃᆡ구로ᄯᅥ나가
셔 셔병삼의집을 ᄎᆞᄌᆞ가니 셔병삼의부々ᄂᆞᆫ 신혼여힝으로ᄯᅥ나가고 그부친이
잇ᄂᆞᆫ지라 리긔쟝은 그부친과 인ᄉᆞ후에 젼후ᄉᆞ실을 일々히말ᄒᆞᆫ후 경ᄌᆞᄂᆞᆫ지금
실셩ᄭᅡ지ᄒᆞ엿다ᄒᆞ나 그부ᄅᆡᆫ되ᄂᆞᆫ사ᄅᆞᆷ은 종시밋지아니ᄒᆞᄂᆞᆫ지라 그러나 셔병삼
의장모되ᄂᆞᆫ부인은 그ᄯᅥ셔울잇셔々 그이허를 일々이다아ᄂᆞᆫ고로 그일이진젹ᄒᆞᆫ
줄로말ᄒᆞ얏더니 그ᄯᅥ야비로소 셔도ᄉᆞ도 ᄌᆞ긔아달이 ᄃᆡ단잘못ᄒᆞᆫ줄을 ᄭᅥ닷고

빅번쳔번ᄉᆞ과ᄒᆞ며 금화이쳔원을쥬어 그ᄋᆞ히양육비로 쓰라ᄒᆞᄂᆞᆫ것을 ᄌᆡ삼ᄉᆞ양
ᄒᆞ다가 마지못ᄒᆞ야 바다가디고 이ᄋᆞ기ᄂᆞᆫ 비록쟝셩ᄒᆞᆫ후라도 셔씨집안에ᄂᆞᆫ 관
계업기로 담판을결졍ᄒᆞᆫ후 리긔쟝은 곳ᄯᅥ나셔 그날셕양ᄯᅥ에 룡산뎡거쟝에 도
착이되얏더라
리긔쟝이 ᄃᆡ구ᄯᅥ ᄂᆞ던날져녁에 한가지일이잇셔스니 이ᄂᆞᆫ다른일이아니라 이날
은 경ᄌᆞ의병이더ᄒᆞ지도안이ᄒᆞ고 평일과ᄀᆞᆺ흔ᄃᆡ 다만ᄋᆞ히우ᄂᆞᆫ소리를 드를졔마
다 요란이굴며 ᄋᆞ히를어ᄃᆡ로치여달나 숨겨달ᄂᆞᆫᄒᆞ며 그러치안이ᄒᆞ면 남의숀
에쥭깃다고 말를슈삼ᄎᆞᄒᆞᄂᆞᆫ지라 의ᄉᆞ의말도 병자의ᄆᆞ음을 요동식이ᄂᆞᆫ것이
ᄃᆡ단이병에히로오니 유ᄋᆞ를멀니치워셔 도모지보지못ᄒᆞ계 ᄒᆞ라ᄒᆞᆷᄆᆡ 김쇼ᄉᆞ
도 그리ᄒᆞ기로 ᄃᆡ답은ᄒᆞ엿스나 좌우간 리긔쟝이 올나오기를 기다리고잇던터
이더라
이ᄯᅥᄂᆞᆫ 아즉초져녁ᄯᅥ이라 경ᄌᆞᄂᆞᆫ방이더웁다ᄒᆞ여 마로에 모긔쟝을치고 유모
ᄂᆞᆫ 어린아히를 젓먹여셔 안방웃간에 ᄌᆡ워놋코 마루뒤문 퇴ᄉᆞ마로々나와 김
쇼ᄉᆞ와로파와 삼인이눕기도ᄒᆞ며 안기도ᄒᆞ여 압헤모긔불을피우고 부침질ᄒᆞ면
셔 이니약이 더니약기ᄒᆞᄂᆞᆫ차에 어언간 경ᄌᆞ의신셰불샹ᄒᆞᆫ타령이되얏더라
다만보건ᄃᆡ 마로모긔쟝속으로 경자ᄂᆞᆫ긔어나와셔 안방으로 드러가더니 탁자
우에 언진창칼을집어 손에들고 얼ᄂᆞᆫ々々ᄒᆞᄂᆞᆫ 칼빗을 한ᄎᆞᆷ드려다보더니 한번

무셔운 우숨을지으며

「이만ᄒᆞ면 어너놈의목아지가 벼지겟지 그못된독ᄒᆞᆫ사람손에 죽게두는이보다 내숀으로몬져 죽여바리는것이 오히려낫지」

ᄒᆞ며 숀에는 칼을잡고 얼골에는 살긔동々ᄒᆞ야 아릭간으로 건너간다 마로뒤에 누어잇던 유모는 어린ᄋᆞ히 누어잇는방에셔 인긔쳑이나는고로 몸을일어 방안을드려다보니 쳔만뜻밧게 경ᄌᆞ는번쩍々ᄒᆞᄂᆞᆫ칼을 숀에쥬이고 모긔쟝을한편으로 치여놋코 졍신모로고자는 어린ᄋᆞ히를바야흐로 칼로질으려ᄒᆞᄂᆞᆫ지라

「아이고머니 져것웬일이야」

ᄒᆞ며 뛰여드러가셔 경ᄌᆞ의허리를안고 잡싸지니 이씩에 경ᄌᆞ왼숀에 들엇던칼을 임의포닥이위로

「콱」질넛더라

제 오 십 일 회

경ᄌᆞ가 어린ᄋᆞ히를 향ᄒᆞ야 찔은칼이 유모의소리질으고 쏫쳐들어오는셔슬과 김소ᄉᆞ와로파가 놀나셔들어오는요란에 쇠약ᄒᆞᆫ팔이썰니여 다힝히칼이바로맛지안이ᄒᆞ고 다만덥흔이불과요를 셔셔뚤을뿐이라

「아이여보 이게무슨짓시요」

ᄒᆞ며 김소ᄉᆞ는 목소리와 몸을벌々썰며 경ᄌᆞ의손에셔 칼을쎄아셔 로파를쥬며

「여보게 할멈이칼갓다가 멀니치우게」

ᄒᆞ고 다시경ᄌᆞ를향ᄒᆞ야

「글셰 원일이오 웨이어엽분아가를죽이려고드오」

유ᄋᆞ는ᄂᆡ몸에 큰변이밋츠려ᄒᆞ엿든줄도 젼연히알지못ᄒᆞ고 오히려 식々거리며

자고잇다 경ᄌᆞ는 김소ᄉᆞ의 놀ᄂᆡ여뭇는말을 예ᄉᆞ로ᄃᆡ답ᄒᆞᆫ다

「그런것이안이라 이어린것을 다릴너와셔 죽이려고ᄒᆞᄂᆞᆫ사람이잇스니々 남에손에ᄂᆡ자식을죽이ᄂᆞ니 ᄎᆞ라리 ᄂᆡ손으로죽이려고 그리ᄒᆞ엿지오……」

그런ᄃᆡ 웨그러케말니셔요」

김소ᄉᆞ는 경ᄌᆞ의모양을 칙은이보며 졍다이말을ᄂᆡ여

「그것슨아마 잘못싱각을ᄒᆞ엿나보오 누가이아기를 죽이려ᄒᆞ깃소 씀즉ᄉᆞ러운 소리도ᄒᆞ네 집안에사람이 이럿케여러시잇ᄂᆞᆫᄃᆡ 누가와셔달나기로 우리가줄니가잇소 그리고 ᄯᅩ문간에는 순검이와셔 파슈를보ᄂᆞᆫᄃᆡ 엇던사람이얼신ᄒᆞ깃소 만일수샹ᄒᆞᆫ사람만 잇스면슌검이 곳잡아갈걸 조곰념녀업소 그런걱졍은ᄒᆞ지말고 졍신을ᄎᆞ려셔 편안이자오응」

경ᄌᆞ는비로소 마음을진졍ᄒᆞ엿는지

「네 ᄂᆡ가병만이럿치안이히셔 괴운을조곰만찰일수가 잇스면 어린것을 어

ᄃᆡ던지 멀니다가 감초고을연만은……」
ᄒᆞ며 긔운업는 목소ᄅᆡ로 무수히한탄ᄒᆞᆫ다
김소사는 경즈의ᄒᆞᄂᆞᆫ양이 참불샹ᄒᆞ여
「아가는 우리가잘감추어 쥴것이니 념녀마오응 유모ᄒᆞ고 안동히셔 아바
니ᄒᆞ고 시골공주ᄃᆡ으로 보ᄂᆡ드리릿가 그러면 뎨일ᄆᆞ음이 노이겟지오」
경즈ᄂᆞᆫ 그말을알아드럿ᄂᆞᆫ지 고ᄀᆡ만 ᄭᅳ덕〳〵ᄒᆞᆫ다
「그러면 오날은 간난어멈ᄒᆞ고 나ᄒᆞ고두리셔 ᄋᆞ가를맛타가지고 잇슬터이
니 조곰도 념녀말고 어셔두러누어 편안이자오」
ᄒᆞ며 경즈를 저촉ᄒᆞ여 모긔장속으로 다리고드러가셔 누이고 김소ᄉᆞᄂᆞᆫ 그엽
헤안져셔 경즈의 ᄆᆞ음을 위로ᄒᆞ노라고 여러가지고담리약이를 ᄒᆞᆯ동안에 경즈
ᄂᆞᆫ 코요히잠이드ᄂᆞᆫ지라 김소ᄉᆞᄂᆞᆫ 모긔장을써들고나와셔 근쳐에잇ᄂᆞᆫ 칼등속
은 모다치여 보이지안이케ᄒᆞ고 다시마루뒤 퇴ᄉᆞ마루로나와셔 지금놀ᄂᆡ인 리
약이와 명일리긔장이도라오면 어린아히부터 몬져멀니보ᄂᆡᆯ일을 의론ᄒᆞ기로ᄒᆞ
고 그날밤은 무ᄉᆞ히지ᄂᆡ엿더라
요ᄉᆞ이일긔증열ᄒᆞ여 강건ᄒᆞᆫ사ᄅᆞᆷ이라도 이와갓흔더위에ᄂᆞᆫ 병이침노키 쉬운것
이여ᄂᆞᆯ 더구나경즈ᄂᆞᆫ 병즁이라 더욱이긔후로인연ᄒᆞ여 일이일동안으로ᄂᆞᆫ 병
셰젹이덧쳣다한지도 모로겟더라